



헝가리 개황

201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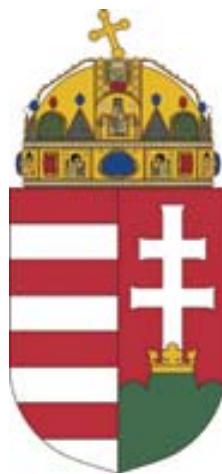




헝가리 개황

국가의 상징

1. 국가 문장



- 헝가리 나라문장은 전쟁·지배계층의 변동으로 변화를 거듭하다가 1990년 헝가리 국회가 현재의 나라문장(Coat of Arms)을 채택하였음.
- 나라문장은 수직으로 양분된 방패모양으로, 왼쪽은 적색과 은색의 여덟줄 무늬로 되어 있으며, 오른쪽은 3개의 푸른 봉우리 위에 금색의 작은 왕관이 놓여있으며 그 위 은색의 부족장 십자가 꽂혀 있음. 방패의 상단에는 헝가리 왕관이 위치함.
 - 적색과 은색의 여덟줄 무늬 : Arpad 가문을 상징
 - 은색 4줄 : 헝가리내 4대 강(Duna, Tisza, Drava, Szava 강)
 - 3개 푸른 봉우리 : Tatra, Matra, Fatra 산

2. 국 기



- 9C경 마자르족은 “Turul”이라는 전설적 독수리를 그린 깃발을 사용한 것으로 전하고 있으며, 최초의 국왕인 이슈트반 왕 이후 수백년간은 적색과 백색의 줄무늬에 부족장 십자를 그린 깃발을 사용함.
- 적·백·녹 삼색기는 1830~1840년 혁명기에 사용되었는 바, 적색은 혁명, 백색은 평화, 녹색은 희망을 상징함.
- 헝가리 왕정시기에는 왕관이, 왕정이 폐지된 1945년 이후에는 1848년 헝가리 혁명 지도자였던 “코슈트(Kossuth)” 문장이, 1949년 헌법에서는 인민공화국 문장이 국기에 표시됨.



헝가리 개황

3. 헝가리 왕관

- 헝가리 왕국을 법제화한 이슈트반(István) 왕이 1000년 교황 실베스터 2세(Sylvester II)로부터 받은 왕관으로 헝가리 왕이 종교적인 문제에 직접 교황의 책임 하에 있으며 주권국임을 상징함.
- 지금 남아 있는 왕관은 교황이 사사한 왕관과 모양이 다른 바, 원래의 왕관은 신성로마제국 하인리히 3세에게 전리품으로 빼앗기고, 하인리히 3세는 동 왕관을 로마로 보냈으나 로마에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됨.
 - 현재의 왕관은 상단부는 이슈트반 왕의 유품이나 하단부는 1074년경 비잔틴제국 황제 Mickael Ducas가 헝가리 왕 게자(Géza) 1세에게 선물한 것.
- 동 왕관은 수없이 약탈의 대상이 되었던 바, 왕관 보호기관이 설립되고 왕관보호 군대도 설치 되기도 했음.
- 2차 대전말 우익 헝가리 정부의 인사들이 왕관을 가지고 서부로 도망하던 중 미군에 사로잡힘으로써 미국에서 보관하다가, 1978년 카터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헝가리에 되돌아 왔으며 현재는 헝가리 국회에 전시중임.

4. 국가

- 헝가리 국가(가사)는 헝가리 혁명기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Ferenc Kölcsey(1790-1983)에 의해 1823년 쓰여졌으며 1828년 최초 발표됨.
- 음악은 1844년 작곡가 겸 지휘자였던 Fenenc Erkel(1810-1893)이 국가 작곡을 위한 대회에 입상한 곡임.
- Kölcsey-Erkel의 헝가리 국가는 1844년 부다페스트 국립극장에서 최초 연주되었고 1903년에야 정식 국가로 인정됨.
- 헝가리 국가는 8절까지 있지만 공식행사에는 대부분 1절만 연주되고 있음.
- Mihály Vörösmarty(1800-1851)의 “Szózat(Summons:부름)”란 시에 Beni Egressic (1914-1851)가 곡을 붙인 노래가 가끔 공식행사에 불려지기도 하는 바, 이 노래도 헝가리의 국가로 간주됨.



Part I.	개관	9
---------	----	---



Part II.	약사	15
----------	----	----

※ 주요 연표	22
---------	----



Part III.	정치	27
-----------	----	----

1. 헌법	28
2. 대통령	28
3. 행정부	29
4. 입법부	30
5. 사법부	32
6. 정당	34
7. 군사	35



Part IV.	최근 국내 정세	37
----------	----------	----

1. 오르반 총리의 재집권(2기~3기)	38
2. 오르반 총리의 3연속 집권(4기)	42

Part V.	대외 관계	45
---------	-------	----

1. 대외 정책 기조	46
2. 오르반 정부의 외교정책	48
3. 주요 국가들과의 대외관계	49

Part VI.	경제	51
----------	----	----

1. 배경	52
2. 헝가리 경제구조	52
3. 오르반 정부의 경제정책	53
4. 동방정책을 통한 우리나라와의 협력 강화	54



5. 향후 전망	55
※ 주요 경제 지표	56

Part VII. 사회·문화	57
------------------------	-----------

1. 언 론	58
2. 문 화	60
3. 관 광	67
4. 교육·과학	70
5. 종 교	72
6. 교 통	73



Part VIII. 한·헝가리 관계	75
----------------------------	-----------

1. 한국과 헝가리의 조우	76
2. 기본관계	77
3. 정무관계	80
4. 경제관계	85
5. 한국 문화원 설립	88
6. 재외동포 현황	89
7. 친선협회	89



Part IX. 헝가리·북한 관계	91
---------------------------	-----------

1. 기본관계	92
2. 교류현황	92



Part 부록	95
----------------	-----------

1. 주요인사 인적사항	96
2. 세계 속의 헝가리	102





I. 개 관

1. 일 반
2. 정 치
3. 경 제

1. 일 반

- 국 명 : 헝가리 (Hungary)
 - 헝가리어로는 Magyarorszag(마저르오르자)으로 표기
- 위 치 : 유럽 중동부 내륙 (북위 45.48~48.35도)
 - 우리나라를 북위 33도~43도
- 면 적 : 93,030km² (한국의 94%, 한반도의 42% 면적)
 - 동·서간 : 528km, 남·북간 : 268km
 - 국경 : 2,171km(7개국과 접경 :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 인 구 : 9,778,371명(2018년 기준)
 - 인근국에 총 300만명 헝가리계 거주(1920년 트리아농 조약에 의해 영토가 1/3로 축소되면서 다수가 인근국에 거주)
- 수 도 : 부다페스트(175만명)
 - 23개 구역(district)로 구성
- 표준시 : GMT + 1시간(한국시간 - 8시간)
 - 서머타임 시행기간 (4~10월) : -7시간
- 주요도시 : 데브레첸(20만명), 세게드(16만명), 미슈콜츠(15만명), 피치(15만명), 쥐르(13만명)
- 기 후 : 대륙성 기후
 - 연 평균기온 : 10.8°C, 연평균 강우량 500-900mm 정도
 - 겨울 : 평균 0°C~-4°C
 - 여름 : 평균 18°C~22°C

- 지 형

- 다뉴브강(전장 2,860km, 볼가강에 이어 유럽에서 2번째 긴 강, 헝가리내 전장 417km)을 사이에 두고 국토양분
 - ※ 다뉴브강은 헝가리에서는 두너(Duna)강으로 불림
- 헝가리 대평원은 헝가리에서 제일 긴 티서강(전장 962km, 헝가리내 전장 585km)으로 양분
- 중부유럽에서 가장 큰 벌러تون(Balaton)호수(동서간 77km, 남북간 1.3km-14km, 육지내 바다로 불림)는 헝가리 최고의 관광 휴양지이며, 헝가리의 수산물 주 생산지
- 헝가리 국토의 70%가 온천개발 가능 지역이며, 현재 전국에는 500여개의 지역에서 온천수가 나오고 수온이 30°C 이상이어서 근육신경계 질환 치료효과로 유명(지하에는 4,000km³의 온천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전국토의 70%가 저평원 지대로서 농지로 이용, 대부분이 200m 이하의 낮은 구릉지, 2%가 300m 이상의 구릉지대, 가장 높은 산이 1,014m에 불과

- 언 어 : 헝가리어(마자르어)

- 문맹률 : 0.6%

- 민 족 : 헝가리인(Magyar, 92.3%), 짐시(5%), 독일계(2%) 등

- 종 교 : 기독교 54%(카톨릭 40%, 개신교 14%), 무종교 18% 등

- 공휴일 : 신정(1.1.), 독립기념일(3.15.), 부활절 금·월요일, 노동절(5.1.), 건국기념일(8.20.), 1956년 민주항쟁기념일(10.23.), 만성절(11.1.), 성탄절(12.25.-26.)

2. 정 치

- 정치체제 : 의원 내각제(단원제)
- 주요인사
 - 대통령 : János Áder (2017.5월 연임, 5년 임기, 의회간선)
 - 총 리 : Viktor Orbán (2018.3월 3연임, 청년민주동맹)
 - 외교통상부장관 : Péter Szijjártó (2014.9월~, 청년민주동맹)
- 국 회 : 단원제(의석수 199석, 임기 4년)
 - 국회의장 : László Kövér (2018.5월 3연임, 청년민주동맹)
- 정 당
 - 청년민주동맹(Fidesz+KDNP) 133석(117+16), 우파연합(Jobbik) 26석, 사회당(MSZP) 20석, 민주연합(DK) 9석, 대안정당(LMP) 8석 등
- 주요 국제기구 가입
 - UN(1955.12월), IMF(1982.5월), OECD(1996.3월), NATO(1999.3월), EU(2004.5월)

3. 경 제

※ 주요 경제지표 (2018년, 출처 : EIU, 헝가리 통계청)

- GDP : 1,533억불, 1인당 GDP(구매력 기준) : 30,134불
- 실질 경제성장률 : 4.7%
- 물가상승률 : 2.9%
- 평균실업률 : 3.7%

- 화폐단위 : Forint (1미리 = 270포린트, 2018년 평균)
- 무역 : 2,105억불
 - 수출 : 1,053억불 / 수입 : 1,052억불
- 산업 구성(GDP 점유율, 2018) : 서비스업(69.6%), 제조업(26%), 농업(4.4%)
 - 주요 제조업 : 자동차 산업(아우디, 벤츠, 스즈키, 오펠 등), 식품가공업, 섬유업, 금속산업 등
 - 주요 농축산물 : 밀, 옥수수, 해바라기씨, 감자, 돼지고기, 소고기, 가금류, 기타 유제품 등



II. 약 사

1. 고대국가 형성
 2. 몽고 및 터키의 침입
 3. 합스부르크가 통치와 독립 전쟁
 4.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Dual Monarchy) 시대
 5. 1·2차 세계대전
 6. 공산정권 시대
 7. 공산당 일당독재 종식
 8. 제1차 연정 : 언털 정부(1990-1994)
 9. 제2차 연정 : 호른 정부(1994-1998)
 10. 제3차 연정 : 오르반 정부(1998-2002)
 11. 제4차 연정 : 메舛시 정부(2002-2004) 및 쥬르차니 정부(2004-2006)
 12. 제5차 연정 : 주르차니 정부(2006-2009) 및 위기관리내각(2009-2010)
- ※ 주요 연표

1. 고대국가 형성

- 언어, 고고인류학적 연구에 의하면 Magyar족의 조상은 기원전 3000년경 볼가강과 우랄산맥 사이의 스텝지방에 거주한 Finno-Ugric의 일파로서 서기 3-5세기에 중앙아시아에서 남부 러시아 스텝지방을 거쳐 흑해 북쪽 볼가강과 돈강 유역에 정착함.
 - 서기 600년까지의 헝가리 역사는 언어학적·고고인류학적 추정일 뿐이며, 역사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서기 700~750년부터임.
- 9세기경 Árpád를 중심으로 민족공동체를 결성, 896년경 현재의 위치(카르파티안 분지)로 이주, 서유럽으로 영토 계속 확장 시도중, 955년 Augsburg 근교에서 독일 국왕 오토 1세에 패퇴, 현 헝가리 평원에 영구 정착하게 됨.
- Árpád의 손자 Géza는 대지주로 왕국 설립의 기반을 확립하였으며, Géza의 아들 이슈트반(St. István, 제위 : 997-1038)은 헝가리 왕으로 즉위, 교황 Sylvester로부터 왕관을 받아 헝가리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유럽 기독교 국가에 합류함.

2. 몽고 및 터키의 침입

- 13세기 바투를 선도로 한 몽고 정복군이 헝가리를 침공, 헝가리의 전역이 유린되고 황폐화됨.
- 14~15세기에는 마챠슈(Mátyás) 대왕의 강력한 지도력 하에 중부유럽의 강대국으로 성장, 르네상스문화의 꽃을 피웠으나, 이후 귀족세력의 부상에 따른 왕권 약화로 인해 국력이 쇠퇴함.
- 이후 터키 세력이 확장, 1526년 술레이만(Suleiman) 휘하의 터키군이 헝가리 영토내로 침공을 개시하여 모하치 전투에서 헝가리 왕(Lasjos II)이 전사하고, 헝가리군이 대패함.
- 1541년 이후 터키군은 당시 헝가리의 수도 “부다”를 점령하여 국토의 대부분이 터키의 지배 하에 들어가고, 서부 일부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에 귀속되었으며, 17세기말에는 전 헝가리가 합스부르크가의 영향하에 들어감.

3. 합스부르크가 통치와 독립 전쟁

- 프랑스 혁명 이후, 19세기 초 민족의식이 고조되어 1848년에는 Lajos Kossuth를 중심으로 국민군을 조직, 합스부르크가에 대해 무력 항쟁을 전개하였으나, 지도부의 내분과 러시아의 오스트리아 지원으로 실패함.

4.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Dual Monarchy) 시대

- 1866년 오스트리아는 프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한 뒤 헝가리인의 저항운동이 가열될 것을 우려, 유화정책을 시도하여 1867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간 화해 협정이 체결됨. 이로써 헝가리는 일견 내정상 독립을 회복한 듯하였으나, 오스트리아 황제를 헝가리 왕으로 섬기는 2중군주국 (Dual Monarchy)으로 바뀌었으며 이러한 이중군주국의 형태는 1918년 합스부르크왕조의 해체시까지 지속됨.
- 이중제국시에는 헝가리는 입법, 행정, 사법을 갖는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외교, 국방 및 연방 재정문제에 관해 오스트리아와 공동 행정 체제를 갖게 되었으나, 인구와 국부면에서 우월한 오스트리아가 외교, 국방분야에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함.

5. 1·2차 세계대전

- 1914.6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였고, 1918.11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해체되고 공화국선포함.
- 제1차 세계대전 종전후 1920.6.4. Trianon 조약에 따라 헝가리는 국토의 71%, 인구의 60%를 인접국에 양도하게 되어 유럽의 약소국으로 전락함. 이에 따라 실지회복을 최대의 외교 목표로 삼게 되고 제2차 세계대전시 주축국에 가담하는 계기가 됨.

- 1941.6월 독일의 소련 침공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으나, 헝가리의 반 나치 감정 및 전선이탈 동요 등을 우려한 독일이 1944.3월 헝가리를 완전 점령함에 따라 헝가리는 1945.5월 패전까지 주축국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됨.

6. 공산정권 시대

-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946.2월에는 왕제가 폐지되고, 헝가리는 파리조약(1947년)에 따라 1938.1월 당시 국경으로 돌아가게 됨.
- 소련 주둔군의 지원으로 공산당은 1949.5월 총선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장악, 인민공화국을 선포함.
- Stalin 사후 1953-1955년간 온건노선을 주장하는 Imre Nagy 수상하에 자유화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1956년 제20차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반스탈린 노선 채택을 계기로 스탈린식 강압주의를 지향하는 Rákosi파와 온건노선을 주장하는 Nagy파 간의 암투가 격화됨으로서 국내 경제파탄을 초래함.
- 1956.10.23. 부다페스트에서 대학생, 노동자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민중 폭동이 발생함. 이 “헝가리 봉기”로 Eerő Gerő 제1서기는 해임되고, 수상도 온건한 Nagy로 교체되었으나, 사태는 폭동으로 확산되면서 점차 반공·반소화됨. 정부도 바르샤바조약기구 탈퇴 및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즉각 소련군이 무력개입하여, 11.3. Kádár를 당 제1서기 및 수상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가 등장함.
- Kádár 정부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계속 잔류하고, 소련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의 신뢰회복을 위해 개방정책을 취하는 동시에 1968년에는 경제개혁 정책을 시도함.

7. 공산당 일당독재 종식

-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의 폐레스트로이카 정책에 힘입어 헝가리 사회노동당(공산당) 내에서 개혁파가 세력을 확대함.
- 1989.10월 공산주의 일당 독재 폐지 및 헝가리 사회당으로의 당명 변경 등 개혁조치를 통하여 서구식 사회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40년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마감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함.

8. 제1차 연정 : 언털 정부(1990-1994)

- 1990.3.25.(2차 투표 4.8.)에 실시된 자유총선 결과, 총 386석 중 중도우파 보수성향의 헝가리 민주포럼이 164석을 얻어 제1당으로 부상하고, 언털 요제프(헝가리 민주포럼)가 첫 우파 총리로 선출됨.
- 5.23 헝가리 민주포럼 주도아래 독립소지주당 및 기독민주국민당이 참여하는 제1기 연정이 출범함.
 - 그간 위로부터의 개혁을 주도하여온 헝가리 사회당은 제4당으로 전락
- 1990.7.29. 대통령 선거방식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의회 간선방식이 채택되어 8.3. 의회에서 자유민주연합 소속 Árpád Göncz 대통령이 당선됨.

9. 제2차 연정 : 호른 정부(1994-1998)

- 1994.5월 총선에서는 헝가리 사회당이 총 386의석 중 단순 과반수를 상회하는 209석을 획득하여 제1당으로 부상하였으며, 호른 줄러(헝가리 사회당)가 1994.7월-1998.7월간 총리로 재임함.

- 헝가리 사회당은 국정운영의 책임분담 및 좌익 성향정부에 대한 국내외의 오해 및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파 성향의 자유민주연합과 연정을 구성함.
- 1995.6월 Göncz 대통령의 5년 임기(1990.8월 선출)가 종료됨에 따라 실시된 의회간선에서 일반국민은 물론 여야로부터도 가장 존경받는 정치지도자인 동 대통령이 재선됨.

10. 제3차 연정 : 오르반 정부(1998-2002)

- 1998.5월 총선에서는 집권당인 헝가리 사회당이 재집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사회당은 제2당으로 전락하고(총 386석중 134석 차지), 청년민주동맹이 148석을 차지하여 제1당으로 부상하였으며, 1당인 청년민주동맹, 3당인 독립소지주당 및 헝가리 민주포럼 등 3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1998.7월 중도 우익 성향의 연립정부가 정식 출범함.
 - 청년민주동맹의 Viktor Orbán 총재가 총리로 선출됨.
- 사회당 연립정부가 대내적으로는 인플레 및 실업률 감소 등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대외적으로는 NATO 가입 확정 및 EU 1차 가입 대상국 선정 등 외교적 실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격차의 확대로 하층민의 불만 증대, 치안 악화, 국유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빚어진 정치부패의 만연 및 우익세력의 부상 가능성에 대한 과소평가 등이 선거 패배 원인으로 나타남.
- 제3기 정부는 중도 우파성향으로서 외자도입을 통한 경제발전, EU 및 NATO 가입이라는 대내외 정책기조를 유지함.

11. 제4차 연정 : 메.Matcher 정부(2002-2004) 및 주르차니 정부(2004-2006)

- 2002.4월 총선에서 박빙의 승부 끝에 사회당-자유민주연합의 중도좌파정당이 청년민주동맹-민주포럼의 중도우파정당연합에게 10석차로 승리, 연정을 구성했으며 메.Matcher 총리가 선출됨.

- 양 진영은 선거과정에서 모두 시장경제, 사유화 및 EU 가입을 최우선과제로 설정, 정책의 수렴화 양상
- 지금까지 3차례 치루어진 총선의 흐름을 볼 때, 1990년 총선시에는 공산주의 몰락의 영향으로 우익정당인 형가리 민주포럼이 승리하였으나, 1994년 총선시에는 경제 실패 등의 이유로 좌익정당인 형가리 사회당이 압승을 거두었으며, 1998년 총선시에는 또다시 우익세력이 부상한 이어 2002년 총선에는 좌파세력으로 회귀
 - 2004.6월 실시된 EU의회 선거(24석 선출)에서는 제1야당인 청년민주동맹이 47.1%의 득표(12석)로 압승, 청년민주동맹의 여당에 대한 공세가 강화됨.(사회당은 34.1%로 9석)
 - 2004.9월 연립참여정당인 자유민주연합과의 갈등으로 메鞠시 총리가 사임하고 주르차니 총리 내각이 출범함.
 - 2006년 총선을 대비, 여야 경쟁 구도 심화

12. 제5차 연정 : 주르차니 정부(2006-2009) 및 위기관리내각(2009-2010)

- 2006.4월 실시된 총선에서 사회당-자유민주연합의 중도좌파정당이 승리, 재집권에 성공함.
 - 주르차니 총리는 국가운영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강력한 긴축 및 중세 정책을 추진
-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긴축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구체적 개혁정책에 대한 야당 및 국민들의 저항감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하여 2006.10월 지방선거에서 집권연정이 참패함.
- 2008.3.9. 찬반 국민투표시 의료 및 교육개혁 관련 주요 법안이 부결되어, 주르차니 총리 및 집권 여당은 상당한 타격을 받음.
- 2008.4.30. 주르차니 총리가 자유민주연합(연정파트너) 소속 보건부 장관을 사전협의 없이 해임한데 대해 자민련이 전당대회에서 연정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연정이 붕괴됨.
 - 연정 붕괴는 자민련의 급진적 개혁 성향에 대한 사회당과의 갈등이 원인

-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집권 소수여당의 위기대처능력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팽배한 가운데 주르차니 총리는 역대 총리중 최하의 지지율을 기록함.
 - 2009.3.21. 주르차니 총리는 경제위기의 파고를 극복하지 못하자 돌연 사임을 발표, 4.14. Gordon Bajnai 전 경제부 장관을 총리로 하는 위기관리 내각 구성
 - 2010.4월 총선시까지만 존속하는 한시적인 위기 관리정부로서 헝가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테크노크라트 내각
- ※ 위기관리내각의 경제개혁 추진
 - 2009.4.14. 출범한 G. Bajnai 신임 총리의 위기관리 내각은 ①시급한 재정지출 감축, ②기업의 고용관련 세금 완화 및 ③고용확대와 노동의욕 고취를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안 발표
- ※ 2009.6월 EU의회 선거 결과
 - 제1야당 청년민주동맹(Fidesz)이 지지율 56.4%로 총 22석 중 14석을 확보하면서 2010.4월 총선에 대비한 유리한 형세 구축
 - 사회당은 17.4%(4석)로 종전보다 5석이 줄어들었으며, 연정파트너였던 자민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한 반면, 강경우익 정당으로 알려진 Jobbik이 14.8%(3석)의 지지율로 상승

주요 연표

- 895-896 : 정착과 건국
- 1000 : 성 이슈트반 왕 카톨릭 수용 (헝가리의 國父)
- 1000-1541 : 헝가리 왕국(헝가리 왕조의 통치 시대)
- 1241-1242 : 몽고의 침입
- 1526 : 터키군의 헝가리 침공으로 모하치 전투에서 헝가리 군 대패
- 1541-1686 : 터키 지배(터키에서 파샤(총독)들을 파견하여 통치)
- 1686 : 사보이 공국의 유진(오이겐) 왕자의 헝가리 해방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로 들어감)
- 1686-1867 :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치

- 1848-1849 : 헝가리 혁명과 독립전쟁
- 1867 : 합스부르크 - 헝가리 대타협(Ausgleich)
- 1867-1918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 1914-1918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일원으로 제1차 대전 참전(패전)
- 1918-1919 : 헝가리 소비에트 공화국
- 1919-1946 : 호르띠의 섭정 시대
- 1920 : 트리아농 조약 (베르사이유 조약의 부속조약)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해체
- 1938-1945 : 제2차 세계대전 참전(주축국의 일원)
- 1944 : 연합국과 단독으로 휴전 시도 (비밀조약) - 실패
- 1944 : 독일의 침공 - 부다페스트 점령
- 1944.12.3. : 데브레첸에 헝가리 사회주의 공화국 임시정부 수립
- 1945 : 소련군에 의해 헝가리 해방
- 1946-1948 : 헝가리 공화국 (연립정부)
- 1948 : 공산당 독재 실현(살라미 전술)
- 1956.10.23. : 헝가리 혁명(부다페스트 공대 학생이 중심)
- 1956.11.4. : 소련군의 군사적 개입으로 헝가리 혁명 진압
 - 헝가리 정부의 공식통계로는 약 200명이 사망했다고 하나, 비공식 통계로는 약 3,000명 사망
 - 미국으로 대거 이주한 헝가리의 노벨상 수상자, 과학 기술자들을 포함하여 약 20만명의 지식인과 유력 인사들이 해외로 망명
- 1956-1958 : 개혁파 수상이었던 임레 네지(Imre Nagy)와 그의 정치적 동료 400명 이상 교수형

- 1963 : 정치범에 대한 특별 대사면 실시
- 1968 : 신경제정책 실시
- 1979 : 경제적 위기 시작
- 1988 : 경제적 불황으로 카다르(공산당 서기장) 실각
- 1988-1989 : 공산당 일당체제 붕괴
- 1990.3.25. : 의회민주주의로 체제전환(복수정당제도 도입)
 - 단원제, 국회의원 386석
- 1994.7월 : 총선에서 사회당 승리/사회당 및 자유민주연합간 연립정부 구성 총리에 줄라 호른 선출
- 1995.7월 : 아르파드 괰츠 대통령 재선
- 1998.5월 : 총선에서 청년민주동맹(Fidesz) 승리/독립소지주당 및 헝가리 민주포럼간 연정 구성
- 1998.7월 : 35세 약관의 오르반 당수 총리 취임
- 2000.8월 : 폐렌츠 마들 대통령 취임
- 2002.4월 : 총선에서 사회당/자유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중도좌파 정당이 승리, 연정구성
- 2002.5월 : 메.Matcher 총리 취임
- 2004.5월 : 헝가리 EU 가입
- 2004.9월 : 주르차니 총리 취임
- 2005.8월 : 라슬로 쇼욤 대통령 취임
- 2006.4월 : 사회당과 자유민주연합간 연정으로 쥬르차니 총리 재집권
- 2009.4월 : 주르차니 총리 사임

- 2009.4월 : 베이너이 총리의 위기관리내각 출범
- 2009.6월 : 구주의회 선거에서 사회당 대패, 극우정당 약진
- 2010.4월 : 총선에서 청년민주동맹(Fidesz)+기독교민주당(KDNP) 연합이 승리하여 의회 의석 2/3 확보
- 2010.5월 : 오르반 총리의 제2내각 출범
- 2010.8월 : 팔 슈미트 대통령 취임
- 2011.1월 : EU[사회 순환 의장국(2011년 상반기) 수임
- 2011.4월 : 개정헌법 의회 가결
- 2012.1월 : 신헌법 발효
- 2012.5월 : 야노슈 아데르 대통령 취임
- 2014.4월 : 총선에서 청년민주동맹+기독교민주당 연합, 의회 2/3 의석 확보(199석 중 133석 확보)로 재집권
- 2014.5월 : 오르반 총리 취임(3기)
- 2014.5월 : 유럽의회선거에서 청년민주동맹 승리
- 2014.10월 : 지방선거에서 청년민주동맹 승리
- 2017.5월 : 야노슈 아데르 대통령 연임
- 2018.4월 : 총선에서 집권 여당연합이 199석 중 133석 확보, 3연승 압승
- 2018.5월 : 오르반 총리 취임(4기)



III. 정 치

1. 헌 법
2. 대통령
3. 행정부
4. 입법부
5. 사법부
6. 정 당
7. 군 사

1. 헌법

가. 변천

- 1946.1월 신헌법제정(1946.2월 공화국 선포)
- 1949.8월 인민공화국 헌법제정
- 1972, 1983 헌법개정
- 1989.10월 신헌법제정
 - 의원내각제 채택, 복수정당제 도입, 헝가리 국호 변경
- 2011.4월 헌법개정(2012.1.1. 발효)

나.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 대표
 - 내각수반인 총리가 내각구성 및 국정 책임
- 최고 행정기관은 각료회의
- 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 법원(대법원, 고등법원, 항소심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으로 구성

2. 대통령(국가원수)

가. 선출 방식

-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임기 5년(연임가능)의 대통령 선출

- 국회의원 50명이상의 추천으로 출마하여 재적 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 2/3 미달시 새로운 추천 절차를 거쳐 2차 투표 실시, 재적 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 2차 투표에서 2/3 미달시 최상위 2인에 대한 결선 투표 실시, 최다 득표자 선출
- 현 대통령 : János Áder (2012.5.2. 당선, 2017년 연임)

나. 주요권한

- 법률 서명·공포, 법률 거부권 보유, 국회해산 및 총선 일자 결정, 국회 출석 및 입법 제안, 정부 구성 위임, 행정부 주요인사 임면, 군통수권, 판사 임면, 특별 사면, 헌법재판소 재판 발의

3. 행정부

가. 지 위 : 헌법상 최고 행정집행기관

나. 구 성

- 의회에서 선출되는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가 최고 행정기관이며, 의장인 총리가 행정 수반
-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가 승인
- 총리와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각료는 의원 겸직이 가능
- 지방행정구역 : 19개 County, 23개 City(County 지위), 274 City, 2,871 Village로 구성

헝가리 정부 각료명단 (2019.3월 현재)

- 총리 : Viktor Orbán
-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 : Sándor Pintér
-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 : Mihály Varga
- 인적자원부 장관 : Miklós Kásler
- 농업부 장관 : István Nagy
- 국방부 장관 : Tibor Benkő
- 외교통상부 장관 : Péter Szijjártó
- 혁신기술부 장관 : László Palkovics
- 법무부 장관 : László Trócsányi
- 총리실 장관 : Gergely Gulyás

4. 입법부(국회 : National Assembly)

가. 지 위

- 헌법상 국가권력의 최고기관
 - 단원제, 임기 4년
 - 의석 : 199석(지역구 106, 비례대표 93)

나. 주요권한

- 입법 및 헌법 개정, 국가예산 결정, 국가경제계획 결정, 대통령 및 총리 선출
- 감사원, 옴부즈만에 대한 감독
- 각료,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선출, 대통령 탄핵소추

다. 회 기 : 연 2회 정기회의(2월~6월, 9월~12월) 및 임시회의

라. 의장단 (2018.5.18. 구성)

- 국회의장 : László Kövér(청년민주동맹)
- 부의장 (5명)
 - István Jakab(청년민주동맹)
 - Sándor Lezsák(청년민주동맹)
 - István Hiller(사회당)
 - János Latorcai(기독민주국민당)
 - Tamás Schneider(우파연합당)

마. 선거방식

- 소선거구 및 비례대표제 혼합 (199석, 2012.1월부터 적용)
 - 106개 소선거구 106명
 - 전국구 비례대표 93명

바. 정당별 의회 의석 분포 (2019.3월현재)

- 청년민주동맹(Fidesz+KDNP) : 133석(117+16)
- 우파연합(Jobbik) : 26석
- 사회당(MSZP)-Dialogue 연합 : 20석
- 민주연합(DK) : 9석
- 대안정당(LMP) : 8석
- 기타 및 무소속 : 3석

※ 5석 이상 의석수를 확보해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가능

5. 사법부

가. 법원 조직

- 신헌법 도입(1989.10월)으로 각급 법원을 5단계로 재조직하고 일부 명칭을 변경
 - 1) 대법원(Curia)
 - 2) 고등법원(High Court)
 - 3) 항소심법원(Court of Appeal)
 - 4) 지방법원(Municipal Court)
 - 5) 행정 및 노동법원(Administrative and Labor Court)
- 모든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함. 법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30세 이상인 자만 법관에 임용 가능
 - 대법원(Curia)
 - 기존의 Supreme Court에서 고유 명칭인 Curia로 변경

- 대법원장은 5년 이상 경력의 법관중 대통령의 추천으로 의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하며 임기는 9년
- 대법원장은 연 1회 법원행정청장에게 대법원의 운영, 예산, 판결 결과 등 사항 보고
- 대법원장은 연 1회 국회에 각급 법원의 판결관련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법 관련 사항 보고

나. 법원행정청(National Office for the Judiciary : NOJ)

- 모든 법원의 인사, 예산 및 행정 권한 행사
 - 대법관 부임, 법관의 전보, 법무부 및 NOJ에 법관 부임권 행사
- 행정청장의 임기는 9년으로서 5년 이상 경력의 법관중 대통령이 추천하며 의회 재적 2/3 이상으로 선출

다. 법관위원회(National Judiciary Council : NJC) 신설

- 각급 법원의 감독 기관이며, 위원장은 6개월 순환제
- 위원회는 위원장과 14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5년 이상 경력의 법관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 위원은 5년 이상 경력의 법관중에서 선출
(1명은 고등 법원, 5명은 항소심 법원, 7명은 지방 법원, 1명은 행정 및 노동법원에서 각각 선출)
- 각급 법원의 행정, 예산, 인사 등에 관한 의견을 NOJ에 제시

라. 검찰

-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으로 구성
- 국회에서 선출되는 검찰총장(임기 9년)이 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하며 검사 임명권 보유

마. 헌법재판소

- 1989년 신헌법제정과 함께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를 위한 헌법재판소 신설
- 국회에서 15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며, 헌법재판소장도 국회에서 선출(임기 12년, 70세 정년)

6. 정당

- 청년민주동맹(Fidesz - Hungarian Civic Party) : 현 집권당
 - 창립 : 1988.3월 사회주의 노동자당(구 공산당) 청년단체에 대항 목적으로 발족, 1995년 급진학생운동 노선으로부터 중도 자유주의 노선으로 변경, 당명도 Fidesz에서 Fidesz - Hungarian Civic Party로 변경
 - 성향 : 중도우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개혁 주장
 - 대표 : Viktor Orbán
- 우파연합(Jobbik : Movement for a Better Hungary)
 - 창립 : 2003.10.24.
 - 성향 : 극우민족주의
- 혁가리 사회당(MSZP : Hungarian Socialist Party)
 - 창립 : 혁가리 사회주의 노동자당(구 공산당)에서 1989.10월 당명을 혁가리 사회당으로 변경
 - 성향 : 사회민주주의, 점진적 경제개혁 주장
- 민주연합(DK : Democratic Coalition)
 - 창립 : 2011.11.6. Gyurcsány 전 총리가 9명의 사회당 의원을 규합 창당
 - 성향 : 진보, 친서방, 중도좌파를 표방하면서, 현 Orbán 정권 축출을 목표
- 녹색당 계열 대안정당(LMP : Politics Can be Different)
 - 창립 : 2009.2.26.
 - 성향 : 중도좌파, 녹색정치와 제3의 정책 주장

- 기독민주국민당(KDNP : Christian Democrat)
 - 창립 : 1943년 형가리 기독교 정치인, 지식인, 성직자 등이 창립
 - 성향 : 반공산주의 및 민주주의 옹호

7. 군사

가. 개요

- 1955년 바르샤바 조약기구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
- 1991.6월, 형가리 주둔 소련군 완전 철수
- 1999.3월, NATO 가입

나. 군사제도

- 군 통수권자 : 대통령
 - 국방장관 : Tibor BENKŐ
 - 총사령관 : Ferenc KOROM
- 병역 : 모병제(2004.6월 징병제 폐지)
 - 18~47세까지 모병, 정년 65세
- 군 구조(2019.1.1. 일부 개편)
 - 총사령관 예하, 육·공군, 군수 및 지원부대 편성
- 총 병력 : 약 31,500명(예비군 8,000여명 포함)
- 국방예산(2019년) : 약 21억불(GDP의 1.07%)

다. 주요 편성 및 장비

- 육군 : 2개 보병여단, 1개 특수전여단, 1개 공병연대
 - 러시아제 전차(T-72) 29대, 장갑차(BTR-80) 350대
 - 곡사포(D-20) 18문, 박격포 50문, 휴대용 대전차미사일 130대
 - 공군 : 1개 비행여단, 1개 헬기여단, 1개 방공연대
 - 전투기(JAS 39 Gripen) 14대, 공격헬기(MI-24) 12대, 다목적헬기(MI-7, 18) 17대
- ※ 軍 현대화계획(Zrínyi 2026)에 의거, 러시아제 무기를 점진적으로 교체 추진

라. 주요 국방정책

- 새로운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헝가리 국방사령부(HDFC) 창설(2019.1.1.)
 - 기존의 일반참모부(GS)를 국방부로부터 분리
 - 일반참모부(GS, 부다페스트 국방부내 위치)와 작전사령부(JFC, 세케슈페헤르바르 市)를 HDFC(세케슈페헤르바르 市)로 통합
 - Zrínyi 2026 추진을 위해 부총사령관 통제 하에 Inspector 직위(5개) 신편
 - 지상군, 공군, 군수부대, 특수전부대, 사이버 Inspector 신설, 전력증강 감독 및 지원담당
 - 軍 현대화계획(Zrínyi 2026) 추진
 - 2016년부터 매년 국방비를 증액하여 2024년까지 GDP의 2% 달성
 - 2018~2026년간 무기획득예산에 10.5 billion USD 할당
 - 2028년까지 중보병여단 개편, 수송/훈련기 및 다목적 헬기 확보
- ※ Airbus 헬기, 독일제 전차, 자주포 도입 결정(2018년)

마. 해외 파병

- UN과 EU/NATO의 일환으로 총 9개 지역에 약 970명 파병
 - 코소보 410여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여명
 - 아프가니스탄(RSM) 160여명, 시리아(OIR) 170여명



IV. 최근 국내 정세

1. 오르반 총리의 재집권(2기~3기)
2. 오르반 총리의 3연속 집권(4기)

1. 오르반 총리의 재집권(2기~3기)

-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회당에 대한 불신과 좌절이 증폭된 가운데, 2010.4월 실시된 총선에서 청년민주동맹당(Fidesz)^[1] 총의석의 2/3 이상을 차지하여 압도적 승리로 1998~2002년에 이어 재집권함.
 - Fidesz는 1989년 체제전환과정에서 학생운동가 중심의 중도좌파 정당으로 출범했으나, Orbán 현 총리하에서 1990년대 중반 중도우파 정당으로 변환
- ※ 2010.4월 총선 결과
 - 청년민주동맹(Fidesz+(KDNP)) : 264석
 - 헝가리 사회당(MSZP) : 59석
 - 우파연합당(JOBBIK) : 47석
 - 대안정당(LMP) : 16석
- 또한 4월 총선 결과, 2002~10년간 집권한 사회당의 몰락과 극우주의 정당인 우파연합(Jobbik)의 원내 제3정당으로의 부상을 통해 헝가리 정치가 우경화됨.
 - 사회당 몰락에는 2008년 경제위기를 초래한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문책과 사회당 인사들의 부패에 대한 불만이 작용
- 현 집권여당은 2010.5월 출범 직후 ‘헝가리의 쇄신’(Hungary should be renewed)을 모토로 일방적인 정치·사회·경제체제 개혁 단행
 - 12개 중앙부처 조직을 7개 부처로 통폐합하고, 공무원에 대한 구조개혁 단행
 - 국영 언론사의 통합운영과 구조조정, 그리고 언론에 대한 공적 감시기능 확대를 골자로 미디어법 개정
 -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권한축소와 함께 예산 등에 관한 법률 의결 정족수를 의석 2/3로 상향 조정
 - 재외 헝가리에 대한 이중국적 부여 및 참정권 부여 추진
 - 헝가리내 14개 전통종교 이외에는 종교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정부 지원도 중단하는 내용의 新종교법 제정
 -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단일 소득세(16%) 도입, 복지제도 축소(은퇴연령 조정, 노동법 개정) 등 신자유주의적 기조와 함께 국가주도 경제개발계획 발표, 은행세 및 위기세 도입, 국영 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 등 국가 개입주의를 병행

- 2012.1월부터 발효된 신헌법이 권력견제기관(검찰, 현재, 대법원, 중앙은행 등)의 권한을 약화 시킨 데 대해 미국 및 서방 주요국들은 헝가리 정치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EU의 규범을 준수 할 것을 요청함.
 - 헝가리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기존 정책을 견지할 방침을 천명하여 EU와의 갈등과 마찰이 있었으나 정부가 EU집행위 요구에 따라 관련 조항개정을 철회하여 안정 회복
- 신헌법이 발효되면서 현 Orbán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 가운데 2012년 상반기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함께 친정부 시위도 동시에 수차례 발생하여 정치적 위기가 발생함.
- 국내 정치권이 긴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오르반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도 일부 반시장적 정책을 도입, 기업과 투자가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가운데,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주재국 경제는 유로 경제권 위기를 맞아 2012년 말 국제신용평가사에 의해 국가 신용등급이 부적격으로 강등 되는 등 정치, 경제 양면에서 곤경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함.
- Pál Schmitt 대통령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사건으로 2012.4.2. 사임하고 집권여당인 청년민주 동맹(Fidesz)은 János Áder EU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고, 5.2. 국회 투표 결과 302표를 얻어 당선됨.
- 헝가리 의회가 2013.3.11. 제4차 헌법 수정안을 찬성 265표의 압도적인 표로 통과시킴에 따라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시위를 벌임.
 - EU집행위와 유럽평의회는 법의 지배, EU법, 유럽평의회 기준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제기 한다는 성명 발표

※ 제4차 헌법수정은 ▲선거 캠페인 방송의 민영채널 방영 금지 ▲법원행정처장의 재판배당 권한 인정 ▲국회에 특별세 도입 권한 인정(헝가리 정부에 지불의무 부과시 국회에서 동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세를 도입할 권한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EU 집행위, 미국 정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음.)
- 2013.9.16. 헝가리 의회는 제4차 헌법수정의 문제 조항들을 서방측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한 제5차 헌법수정안을 가결함
 - Olivier Bailly EU집행위 대변인은 헝가리 정부의 제4차 헌법수정에 대한 EU 집행위의 우려를 반영하여 헝가리 정부가 제5차 헌법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고 언급
- 2014.4.6.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Fidesz(청년민주동맹)가 총의석 199석 중 133석을 획득, 헌법 개정에 필요한 2/3 의석수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데 이어, 5.25.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총 21석 중 12석 획득)와 10.12.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크게 승리 하는 등 2014년에 실시된 3대 선거에서 모두 승리함.

※ 오르반(Viktor Orbán) 총리는 1998~2002, 2010~2014 집권에 이어, 제3기 정부 2014.6.6. 발족

- Fidesz의 승리 요인으로는 ▲사회당 등 야당의 분열에 따른 정책 이슈에서의 주도권 상실 ▲경제 회복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중의 신뢰 상승 ▲오르반 총리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지도력으로 요약됨.
- 오르반 제3기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일방적인 개혁 드라이브 등 독단적인 정치스타일,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 고수, EU에서의 독자적인 목소리 표출 등 현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정권의 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간 민심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해 온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됨.
 - 정부각료 수는 총리실장관 및 무임소장관직을 신설하여 8개에서 10개로 증가
- 최근 ①오르반 총리의 ‘illiberal state’ 관련 연설, ②헝가리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 ③부패연루 혐의 헝가리 정부고위인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 및 이와 관련한 헝가리 정부의 불명확한 대처, ④정부의 인터넷세 부과 시도에 따른 반정부 시위 등으로 인해 오르반 정부의 정통성에 대해 국내외 비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가. 오르반 총리의 ‘illiberal state’ 관련 연설

- 오르반 총리는 2014.7월 루마니아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국가 발전의 필수 요소는 아니며, 자유민주주의를 갖고 있지 않으나 경제 발전을 이루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인도 등 국가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해 EU 및 미국 New York Times 등 서방 언론이 강하게 비판

나. 헝가리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 조치

- 헝가리 정부는 노르웨이 정부가 헝가리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노르웨이 NGO 보조금이 야당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에 지원되고 있으며, 동 자금 집행의 투명성 결여를 사유로 2014.6월 동 보조금 집행 단체인 Ökotárs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9월 헝가리 시민단체를 급습, 컴퓨터와 회계장부 등 압수 조치를 취함.

- 노르웨이 정부는 동 자금에 대한 감사권은 공여협정에 따라 노르웨이 정부에 있으므로 감사 중지를 요청했으나, 형가리 정부는 동 자금이 공금이므로 감사권이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형가리 정부 감사기관(KEHI)이 10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도 상호 갈등
- 2014.9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오르반 총리의 시민단체 탄압에 대해 공식 비난

다. 부패연루 혐의 형가리 정부고위인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

- 2014.10.7. 친정부 일간지 Napi Gazdaság(매일경제)는 형가리 국세청(NAV)이 형가리내 미국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정부가 형가리 국세청 고위간부에 대해 미국 입국금지 조치를 내림으로써 불합리하게 형가리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요지의 기사를 보도함.
- 이 보도에 대해 André Goodfriend 주헝가리미국대사대리는 6명의 형가리 고위인사들이 부패혐의로 입국금지 되었으며,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인사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힘.
- 10.21. 씨야르또(Péter Szijjártó)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방미, Victoria Nuland 미 국무부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와 면담하였으나 성과 없이 귀환함.
- 11.5. 비더(Ildikó Vida) 국세청장은 자신이 입국 금지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됐으나, 그 사유를 알지 못한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힘.
- 국민들은 국세청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하였으나, 오르반 정부는 미국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를 찾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빠진 채 미국에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
- 정치평론가들은 2기 오르반 정부가 “동방정책” 기조 하에 친러시아 정책을 추진하면서 표면적으로도 공공연하게 반EU, 반미 주장(▲Paks 원자력발전소 증설사업을 러시아 Rosatom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 ▲러시아 주도의 South Stream 가스파이프 건설 사업에 적극 협력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EU의 러시아 제재에 미온적으로 참여)해 온 데 대한 미국의 반감이 누적되어 표출된 것으로 분석

라. 정부의 인터넷稅 부과 시도에 따른 반정부 시위

- 10.21. 베르거(Mihaly Varga) 국가경제부 장관은 2015년 예산에 대한 기자회견시 인터넷세(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세금 부과)를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순식간에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는 도화선이 됨.
 - 10.28. 약 10만명이 거리시위에 동참했으며, 이는 2010년 오르반 총리 집권 이후 최대 규모
- 10.29. 오르반 총리가 라디오방송에 출연,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인터넷세를 도입하지 않고 철회하겠다고 직접 해명함.
- Fidesz는 2014년 실시된 3대 선거(총선, 유럽의회선거, 지방선거)에서 모두 압승하여 국민 모두가 자신들의 정책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의외의 반발에 직면하여 결국 인터넷세 부과 방침을 철회함.

2. 오르반 총리의 3연속 집권(4기)

- 2018.4.8. 집권여당인 Fidesz(청년민주동맹)-KDNP(기독민주국민당) 연합은 총의석 199석 중 133석을 획득, 헌법 개정에 필요한 2/3 의석수를 다시 차지하는 압승을 거둠.
- 2018.9월, 유럽의회는 “유럽의 핵심가치에 대한 명백한 위협”을 이유로 혁가리에 대한 제재 절차(리스본 조약 제7조)를 개시하는 등 혁가리-EU간 갈등 관계 지속 중임.
 - 제7조에 의한 제재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단계에서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실제로 제재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
- 2019.5월 실시 예정인 유럽의회(EP) 선거를 앞두고, Fidesz는 소속 정당 그룹인 유럽국민당(EPP) 주요 인사들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EPP내에서 Fidesz를 퇴출시키자는 움직임이 있음.
 - Fidesz는 금년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이슈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럽의회 선거에서의 승리를 견인하고자 하는 전략 구사중

- 3.20. 유럽의회내 최대 교섭단체인 EPP는 헝가리 Fidesz가 EPP당의 가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3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헝가리 여당 Fidesz에 대해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

※ 자격정지 내용 : EPP 당내 회의 참석 자격 정지, 투표권 정지, 당내 직위에 후보 추천 불가



V. 대외 관계

1. 대외 정책 기조
2. 오르반 정부의 외교정책
3. 주요 국가들과의 대외관계

1. 대외정책 기조

가. 개 관

- 헝가리는 중부유럽의 중심에 위치하여 주변 7개국(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세르비아)과 접경하고 있어 주변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유지가 외교정책의 핵심요소임.
 - 1919년 1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베르사이유 체제의 일부로 맺어진 트리아농 조약에 따라 당시 헝가리 국토의 71%, 인구의 60%를 인접국들에 양도하게 됨에 따라 약 300만에 달하는 헝가리 소수민족들이 주변국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등에 흩어지는 결과 초래
 - 이에 따라 헝가리는 주변국 거주 헝가리계인들의 정체성 유지 및 권리보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변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
 - 주변국 헝가리계인들에게 헝가리 국적 및 선거권 부여, 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우크라이나 등 인근국과 마찰이 초래되는 사례도 발생
- 발칸반도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함께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등 비EU 발칸국가와 접경하고 있는 헝가리는 이들 국가의 민주화, 경제안정 및 EU 국가들과의 격차 감소 등이 헝가리의 안보, 경제 및 국내정치적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는 확고한 인식하에 이를 주요 외교 정책 과제로 추진중임.
 - 이에 따라 헝가리는 발칸 지역내 국가들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극단적 민족주의와 인종 차별을 강력히 규탄하며 서부 발칸국가들의 국가 통합 노력을 적극 지원중
 - 주변국중 가장 규모가 큰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및 경제발전에도 큰 관심을 갖고 지원

나. 체제전환 이후 3대 외교정책 과제

- 유럽·대서양 체제에의 통합
- 인근국들과의 선린·우호관계 형성
- 인근국 거주 헝가리계 소수민족 지원

다. 외교정책 과제의 범주별 개요

※ 헝가리 정부는 1999.3월 NATO 가입, 2004.5월 EU 가입으로 유럽·대서양 체제에의 통합이 완료 되고 그간 인근국들과의 역사적인 화해가 달성됨으로써, 특히 지난 2년여 기간에 걸쳐 이전에 있었던 오랜 긴장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

- 2010년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존 외교정책의 노선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바, 헝가리 외교의 중심은 유럽연합이며, 특히 독일과 프랑스와의 관계 증진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아울러 대아시아 외교의 확대발전을 모색 중임.
 - 2005년 이후 외교장관급 교류가 없었던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주변국과의 우호관계 유지, 특히 주변국 거주 헝가리인들과의 긴밀하고 효과적인 교류협력 등을 강조
- EU내 협력 강화
 - EU 가입으로부터 오는 이익 최대 활용
 - EU내 국가이익 대변
 - EU의 공동외교정책 수립에 적극 협력
- 대서양 양안 협력관계 강화
 - 국가안전보장의 지주로서 다원적 민주주의, 개방사회, 법의 지배, 인권 존중 등 공동가치를 기반으로 한 대서양 양안의 관계 강화 추구
 - 새로운 형태의 범세계적·지역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EU와 NATO의 공동노력, 최대한 광범위한 민주국가들과의 협력, UN 등 국제기구의 역할 확대 추구
 -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 시행, 유럽공동방위조직 창설, NATO의 개혁(renewal), 유럽과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쉽에 있어서의 역할 추구
- 인근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 EU 및 NATO 회원국으로서 지역 안정을 공고히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
 - 인근국가들의 EU 및 NATO 가입 지원(특히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적극 지지)
 - EU의 인근국 정책(neighborhood policy) 수립에 적극 참여
 - 특히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우크라이나, 서부발칸 지역국가에 중점을 둔 협력 추구

- 인근국 거주 헝가리계 소수민족 지원
 - EU의 테두리 내에서 헝가리 민족의 역사, 문화적인 통일 추구
 - 헝가리계 소수민족이 출생지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헝가리계 주민들에 대한 이중국적 부여법 제정으로 슬로바키아 등과의 외교적 마찰 위험 상존
-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터키 등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 아시아, 지중해 지역국가,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따라 경제, 과학, 문화, 스포츠, 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
 - 특히 아시아 중시 정책 추구
- 국제테러 대처 적극 지원

2. 오르반 정부의 외교정책

- 오르반 정부는 기존의 ▲유럽 및 대서양 체제로의 통합 ▲주변국과의 선린, 우호관계 구축 ▲인근국 거주 헝가리계 소수민족 지원이라는 전통적인 3대 외교정책 기조에서 외연을 확장, 최근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중시하고 이를 모색하는 동방정책(Opening to the East)을 추진중
- 중유럽이니셔티브(CEI) 및 비세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을 주도하는 등 중유럽 지역에서의 중견국으로 적극적 외교 수행
※ 중유럽이니셔티브(CEI: Central European Initiative) : 1989년 중유럽 체제전환국가 지원을 주목적으로 회원국간 정치·경제 및 문화 협력을 위한 정부간 포럼으로 발족되었으며, 현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등 18개국의 중·동유럽 국가가 회원국
- ※ 비세그라드그룹(Visegrad Group) :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4개국의 중유럽지역 협력기구
- 2015년 발생한 유럽 난민 위기와 관련, 헝가리는 EU의 난민 쿠터 강제 할당에 강력히 반대함. 이 난민을 경제적 이민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유입방지를 위해 세르비아 및 크로아티아와의 국경에 철책을 설치하는 등 강력한 반이민 정책 고수중

3. 주요 국가들과의 대외 관계

- (對EU 관계) 오르반 정부는 주권의 EU 이양 및 유럽합중국 형태의 EU 통합에 반대하고, 이민, 난민, 인권 등 분야에서 EU내에서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고 있음.
 - 다만, 형가리는 EU 보조금 수혜국으로서, 국민들의 60% 이상이 EU 잔류를 희망하고 있어, EU 탈퇴 가능성은 희박
- (對미 관계) 2014년말 미국이 형가리 고위 공직자들을 부패 연루 혐의로 사증발급 거부자 명부에 등재한 조치로 인해 양국 관계가 경색됨.
 - 2016.6월 오르반 총리는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공개 지지한 이래, 대미 관계 개선 기대
 - 트럼프 정부 이후 형가리-미국 관계가 과거에 비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중유럽대학(CEU) 문제* 등 부정적 요소 잔존

※ 중유럽대학(CEU, Central European University) 문제 : 형가리 정부가 2017.4월 의결된 형가리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에 따라, 형가리내에서 유일하게 개정법안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계 대학인 CEU가 폐교 위기에 몰린 사건

 - CEU의 설립자는 미국 민주당 지지자인 형가리계 미국 부호 조지 소로스로, 트럼프 지지자인 오르반 총리가 소로스를 위식하여 동 법안을 채택했다는 비판
- (對러시아 관계) 오르반 총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 1-2회 정도의 만남을 유지할 정도로 친러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형가리내 원전 2기 건설에 러시아 기업이 참여하는 등 양국 관계가 우호적임.
 - 형가리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가스의 80%, 원유의 100%)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형가리 제3의 교역국
- (對우크라이나 관계) EU 및 NATO 회원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공동 노선을 취하고 있으나,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대러 제재에 부정적임.
 -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약 20만명의 형가리계 소수 민족이 거주중이며,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시 대량 난민의 형가리 유입 우려
- (對중 관계) 형가리는 2015.6월 유럽국가로서는 최초로 중국과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협정을 체결하였고, 2017.11월 제6차 CEEC-중국(16+1)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중임.



VI. 경 제

1. 배 경
 2. 협가리 경제구조
 3. 오르반 정부의 경제정책
 4. 동방정책을 통한 우리나라와의 협력 강화
 5. 향후 전망
- ※ 주요 경제 지표

1. 배경

- 1989년 동구 공산권 붕괴 이후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래 산업구조가 다변화됨.
 - 1980년대 말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 종래의 농업 중심의 경제체제로부터 서비스, 제조, 금융부문으로 산업구조 다변화 진행
- 2012년말을 기점으로 침체기를 벗어나 성장국면으로 진입, 2014년 이후 평균 3%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8년 4.9% 성장 기록, 2019년 3.8% 성장 전망(헝가리 중앙은행)

2. 헝가리 경제구조

- 헝가리 경제는 체제 전환 이후 외국인 투자에 의존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형성됨.
 - 중유럽의 지리적 이점과 낮은 인건비로 다국적 기업들은 헝가리 내수시장보다는 대유럽 생산기지로서 헝가리에 진출
 - 제조업이 GDP의 26.0%(EU 평균 20.8%)로, 특히 자동차(제조업 전체의 30.6%), 전기전자(22%), 제약·의료, ICT 등이 중심 산업
 - 외국계 기업이 제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제조·물류·R&D 수행중※ (자동차) 벤츠, 아우디, 스즈키 등, (전자) 삼성, IBM, 지멘스 등, (의료) 머크, 파이저, GE 등
 - 노동임금 대비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공유센터(SSC) 및 R&D 센터의 헝가리 진출 증가 추세
 - ※ (서비스 공유센터, SSC) IBM, 루프트한자, British American Tabacco, UNHCR 등
 - ※ (R&D 센터) 현대중공업, Bosch, Ericsson, GE 등

- 지난 10년간 형가리의 교역량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수출) 형가리의 수출은 지난 10년간 42.9% 증가, 특히 2009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 보임
 - (수입) 중간재를 수입, 가공하여 수출하는 제조업 거점 형태를 보이는 형가리는 수출과 수입이 맞물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입 역시 2009년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증가세 기록
 - (무역수지) 2009년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중이며, 2016년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97억 유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8년에는 55억 유로 달성

헝가리 대외 교역 동향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8	73,380	6.34%	73,700	6.62%	-320
2009	59,139	-19.41%	55,401	-24.83%	3,738
2010	71,449	20.82%	65,934	19.01%	5,515
2011	79,978	11.94%	72,917	10.59%	7,061
2012	79,952	-0.03%	73,297	0.52%	6,655
2013	81,294	1.68%	74,739	1.97%	6,555
2014	84,506	3.95%	78,232	4.67%	6,274
2015	90,460	7.05%	81,865	4.64%	8,595
2016	92,990	2.80%	83,265	1.71%	9,725
2017	100,680	8.27%	92,602	11.21%	8,078
2018	104,885	4.18%	99,327	7.26%	5,557

* 자료원: 형가리 통계청(KSH, 2019년 3월 기준)

3. 오르반 정부의 경제정책

- 오르반 정부는 그간 재정지출 감축 보다는 세수 확대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여나가는 정책 추진으로 대내외적으로 비판에 직면해 왔으나, 2013년부터 형가리 경제가 성장국면에 진입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비판은 다소 주춤함.

- 오르반 정부는 혁신을 제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표방하는 가운데, 친외국기업 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중임.
 - 법인세·고용주세(사회기여세) 인하, 높은 인센티브 제공 등

헝가리 법인세 및 고용주세 조정 계획

(단위: 포인트, %)

구분	2016	2017	2018	2019
법인세	19	9	9	9
고용주세	27	22	19.5	17.5

* 자료원: 혁신 투자청

- 2018.4월 혁신 총선에서 오르반 총리가 연임함에 따라, 현 정부의 정책 연속성 효과가 지속 될 전망임.

4. 동방정책을 통한 우리나라와의 협력 강화

- 오르반 정부는 EU에 과도하게 집중·연계된 혁신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 와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동방정책(Opening to the East) 적극 추진중임.
 - 혁신은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75.7%(혁신 중앙은행, 2017년 기준), 수출 80.8%, 수입 75.6%를 EU에 의존(혁신 통계청, 2018년 기준)
- 현 정부는 동방정책(Opening to the East)을 천명하고, 중국, 러시아, 한국, 인도, 싱가포르와의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는 1년에 1~2회씩 정상회담을 개최, 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
 - (중국) 일대일로 사업 참여,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간 철도 인프라 건설 추진
 - (한국) 아시아 최대 혁신 투자국으로, 우리기업들의 투자진출 활발

- 한국은 SK Innovation, 두산 등 전기차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로, 2018년 독일에 이어 혁가리 외국인 투자 2위국으로 도약함.(823백만 유로, 혁가리 투자청)
 -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립 위한 투자 진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들도 동반 진출하여 중소기업 진출도 확대될 전망

5. 향후 전망

- 혁가리는 오르반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전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자동차 산업과 건설 산업이 혁가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인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등 혁가리 정부의 내수시장 진작 정책으로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
 - 혁가리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4.1%, 2018년 4.9%를 기록, 2019년 3.8%를 전망(혁가리 중앙은행)
- 다만, 2017년까지는 EU 기금이 경제 전반에 투입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4-2020년에 배정된 EU 기금의 83%가 2017년까지 이미 소진됨에 따라 EU 기금 효과가 하강 국면을 맞이 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혁가리 노동력, 인프라 등 생산요소의 생산성 향상 한계 직면에 따라 성장 둔화 전망
※ 혁가리 노동력 생산성지수(EU 집행위) 지속 악화 : 73 (2013년) → 69.8 (2015년) → 68 (2017년)
- 아울러, 2018년말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종료,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대외경제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외국인 투자에 의존한 제조업 중심의 수출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혁가리 경제성장률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주요 경제 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망)	2020 (전망)
명목 GDP (US\$ bn)	140.1	122.9	125.8	139.5	155.5	164.8	176.3
명목 GDP (Ft bn)	32,569	34,324	35,429	38,288	42,006	44,751	46,773
1인당GDP (구매력평가 기준 US\$)	25,646	26,306	26,872	28,357	30,437	32,147	33,654
실질 GDP 성장률	4.1	3.5	2.2	4.4	5.0	3.5	2.2
고정투자 증감률	12.3	4.7	-11.7	18.2	16.5	7.5	2.0
정부부채비율 (GDP대비)	76.7	76.7	76.0	73.4	71.5	70.8	69.8
재정수지 (GDP대비)	-2.6	-1.9	-1.6	-2.2	-2.0	-2.0	-1.9
소비자물가	-0.2	-0.1	0.4	2.3	2.8	3.2	2.4
실업률	7.7	6.8	5.1	4.2	3.7	3.5	3.5
경상수지 (US\$ m)	2,038	3,357	7,799	4,416	1,406	2,597	3,557
부채규모 (US\$ m)	185,854	158,621	146,621	153,175	146,479	145,087	146,138
외환보유고 (US\$ m)	42,019	33,124	25,824	28,002	31,361	31,331	33,179

※ 주요경제지표 : 2019.4월 EIU 자료



VII. 사회 · 문화

1. 언 론
2. 문 화
3. 관 광
4. 교육·과학
5. 종 교
6. 교 통

1. 언론

가. 개관

- 1989년 체제 개방이후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변화를 겪었으며, 신문의 경우 과거 국영에서 대부분 민영화 되어 민간 소유로 바뀌거나 독일의 언론그룹인 악셀 슈프링거 그룹, 스위스계 Ringier 그룹 등 외국계 회사로 소유주가 변경됨.
- TV, 라디오, 통신의 경우는 새로운 질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5년 방송위원회(ORTT)를 설립하여 이 기구의 감독하에 공청회 및 공개 입찰 등을 통하여 민영화가 추진되었으며, 1997년말 TV, 라디오, 통신의 민영화 등 대부분의 작업이 완료되었음.
- 2011.7.1.부로 새 미디어법이 발효되어 신설된 국가미디어청(NMHH)이 신문, 방송, 통신 등 전 언론분야를 감독함(언론위원회 위원은 2/3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며 임기는 9년).
 - 동 미디어법에는 언론위원회의 상부기관으로 국가미디어청을 설치토록 하며, 청장은 의회 승인없이 총리가 임명
 - EU의회는 새 미디어법이 언론의 독립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및 과잉 규제 등 미디어 다원주의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

나. 주요 일간지

- 전국지로는 Népszava(People's Voice)을 비롯한 3개 종합일간지, Világgazdaság(World Economy) 경제전문일간지, Blikk등 6개 타블로이드지가 있으며, Index, Origo 등 10개의 주요 온라인 뉴스사이트가 있음.
- 상기 신문들은 모두 국영이었으나 1989년 체제변환 이후 민영화 및 외국 자본 참여 과정을 거쳐 대부분 외국 언론그룹이나 헝가리 기업가 소유로 바뀌었으며, 발행부수도 헝가리 최대 일간지인 Népszabadság(People's Freedom)가 4만8천부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임.
 - 헝가리 최대 부수를 자랑하던 Népszabadság지는 오르반 3기 들어 측근들의 비리는 다루는 탐사 기사를 대량 게재하였다가 2016.10월 Mediaworks zrt.가 매입한 후 적자를 이유로 곧바로 폐간, 현재는 좌파성향의 Népszava가 그 자리를 대체

- 신문의 성격도 1990년 이전 사회주의 시절에는 공산당 기관지, 정부 기관지, 노동조합 이익 대변지등 모두 좌의 성향이었으나 90년 이후 보수 우익 또는 중도 성향의 신문이 많이 늘어남.
- 지방의 경우 과거에는 전국 19개 주(county)에 1개씩 신문 발행이 허용되어 군 공산당 편집국 명의로 발행되었으나 1990년 이후 새로운 소유주를 물색하여 모두 민영화 됨.
- 온라인 미디어 시장이 커지면서 Lokál과 같은 무가지 발행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기존 일간지나 주간지의 발행부수는 점차 줄고 있는 상황임.

다. 주요 주간지

- 시사 주간지로 HVG, Figyelő 등이 두터운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문화정보지 Pesti Est 등 개방이후 여성, 패션, 어린이등 특정 테마를 주제로 한 주간지가 많이 늘어남.
- 외국어 발행 주간지로는 The Budapest Times, Budapest Business Journal 등 2개 영문 주간지가 있음.

라. 통신사

- Magyar Távirati Iroda(MTI : Hungarian Telegraph Agency)가 1880년에 설립된 이래 헝가리 최대 유일 통신사로 운영되고 있음.
 - MTI는 2011.7.1. 발효된 미디어법에 따라 국영TV 및 라디오의 뉴스를 독점 공급
- 이외 작은 통신사로 최근 Atlantic Press Service와 Ferenczy- Europress가 운영되고 있음.
 - Dow Jones, Bloomberg News, CBS News, AFP, Financial Times, BBC World Service, ZDF, ORF 등이 특파원 파견

마. 라디오·TV ·인터넷 포털

- 라디오
 - 1925년 정규 방송을 시작한 이래 Kossuth(일반종합채널), Petőfi(대중음악 채널) 및 Bartók (고전음악 채널)등 3개 국영 채널과 상업방송인 Info, Retro, Klub, Karc, Klasszik 등이 있음

- TV
 - 지상파 국영방송사인 MTVA는 1958년 방송을 시작한 이래 1997년 주파수 재조정, 민영화 및 통폐합 과정을 거쳐 종합 뉴스 전문 채널인 M1 등 5개 채널(M1~M5), 뉴스통신사인 MTI, 2개의 위성방송 채널인 DUNA(유럽지역 대상), DUNA WORLD(전세계 대상) 등과 PETOFI 등 4개의 라디오 채널, 온라인 뉴스 사이트인 hirado.hu 등을 운영중
 - 민영 방송으로는 최초 민영방송인 TV2와 RTL CLUB, 방송뉴스 전문 통신사인 Hir TV, ATV 등이 있음
- 인터넷 포털
 - 2000년 전후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포털은 Index, Origo로 전 분야에 대해 뉴스 제공
 - 각 신문사들 외 헝가리에서 운영되는 포털은 직접 뉴스를 작성하여 신문사보다 더 자세하게 올리기도 함.

바. 국내언론 특파원 현황 : 없음

2. 문화

가. 개관

(1) 문화적 특징

- 오스트리아-헝가리 2중 제국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문화적 인프라, 일반 국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적 소양과 고급 문화 소비 수요,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헝가리가 배출한 위대한 천재 예술가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헝가리와 부다페스트는 중유럽의 문화 중심지로서의 위상 유지
- 현대음악의 아버지 Béla Bartók, 피아노의 거장 Franz Liszt, 음악 교수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Zoltán Kodály 등을 배출한 동유럽 음악의 중심지
- 현대 사진술의 선구자 Róbert Capa, Endre Kertész 등도 헝가리인으로 헝가리내 현대 사진 전시회를 주기적으로 개최

- 파라마운트 영화사 설립자인 Adolph Zuker, 폭스영화사 설립자인 William Fox(본명 Wilhelm Fried)도 형가리계로 Hollywood에서 영화를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 매체로 만드는 데에 형가리 영화인들은 지대한 기여
- 상기와 같은 분위기를 반영, 부다페스트 국립 오페라하우스(1,200석), Palace of Art(1,700석), Vígszínház(1,032석) 등 세계 정상급 수준의 공연장을 보유
 - 발레 전용 공연장(National Dance Theatre) 보유
- 또한 형가리 경제사정이 악화되어도 공연 티켓 구입비는 아끼지 않는 문화 수요 유지
 - 아울러 수도 부다페스트 뿐 아니라 페치, 세게드, 데브레첸 등 지방 주요 도시는 독특한 봄, 여름, 가을 문화 축제 개최

※ 특히 페치(Pécs)시는 2010년 European Capital of Culture로 지정되어 다문화적 특색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 전통민속과 서방 기독교 문화를 양대 기저로 한 형가리의 문화·예술 활동은 여타 서방 세계에 뒤지지 않음.
- 리스트, 바르톡, 코다이 등 세계적인 음악가와 문카치, 촌트바리 등 세계적 미술가를 배출 했으며, 높은 수준의 집시 음악도 쉽게 접할 수 있음.

(2) 형가리 문화 정책 기조

- 형가리는 19세기 말 이후 독자적인 민족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하여 문화적 황금시대를 꽂았으며, 현재의 형가리 문화와 제도들은 이 시기에 형성된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1차 세계대전 이후 방대한 영토와 인구를 상실하게 되면서 형가리의 문화정책은 상처입은 민족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자 수단의 역할을 하였으며, 형가리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사회주의 시기에는 정부보조를 통하여 문화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문화정책이 추진되었으며, 특히 이 시기 형가리 출신의 국제금융계 거물인 조지 소로스가 출연한 소로스 재단(Soros Foundation)이 형가리 문화예술 지원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음.

- 1989년 체제전환 이후 문화정책은 공산주의 체제 이전의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현대 서양 문화를 재도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1993년 ‘국립문화기금’을 설립하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al)에 기반한 문화예술 정책이 추진되었음. 국가적 차원의 문화정책 추진과 창작기반 조성 사업은 국립문화기금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이같은 정부 보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국립문화기금 : 공연예술, 건축, 문화축제, 시각예술 등 모두 11개 문화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우리나라의 문예진흥기금에 해당), 과거에 민간단체가 해오던 것을 정부 산하로 편입시켰으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문화유산 분야로 헝가리내 약 600개의 박물관에 대한 지원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4년 현재 집권 여당인 청년민주동맹(Fidesz)은 문화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분산된 영역을 중앙집권화하고 있으며, 국수주의적인 민족문화 형성을 목표로 내걸고, 전통유산에 대한 보존과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음.
- 헝가리의 대표적인 문화지원 사업으로는 유럽연합과의 협력 프로젝트 육성지원 사업인 ‘문화컨택트 사업’, 헝가리 영화 진흥과 외국 영화 자본 유치를 위한 ‘국립영화기금 사업’ 등이 있으며, 최근 유럽 구조기금의 헝가리 유치 확대를 위한 ‘뉴세체니플랜’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의 집’ 사업은, 지역 예술교육 및 지역문화 거점으로서 전국에 약 4000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민족문화 활성화를 위한 무용분야 지원, 어린이를 위한 예술교육 등이 이뤄지며, 지역민들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문화예술 교육의 측면에서, 초, 중, 고교에 미술작가 및 연주자 트레이닝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헝가리 내 공립학교들은 약 2,500개의 예술단체와 협업하여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현장에서의 예술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헝가리에서는 음악, 미술, 연극, 무용이 주 1회 이상 수업을 해야 하는 필수과목임.

(3) 문화시설

- 도서관은 전국적으로 10,000여개에 이르며, 1802년 개관한 국립도서관의 경우 750만권, 1826년 설립된 학술원 도서관은 112만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음.

- 1802년 국립박물관이 개관된 이래 전국적으로 800여개 박물관이 있으며, 1884년 개관한 오페라하우스, 국립극장을 비롯한 각종 대형 공연장도 30여개에 달함.

나. 한국과의 문화교류 현황

- 한국과의 문화교류의 역사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의 1938~1941년 리스트 음악원 유학으로부터 시작함.
 - 한국·헝가리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안익태 선생의 흉상을 부다페스트 Városliget 공원내 건립하는 사업을 헝가리·한국 친선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2009.9.15. 흉상 건립 착공식 거행
- 헝가리의 공산화 이후에는 문화교류가 거의 없었으며, 1989년 수교 이후 리스트 음악원 등에 한국인 유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문화예술 관련 한국인 유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헝가리내 의과대학 유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유럽 최초로 2008년 공중파 방송(국영MTV)에서 한국드라마 ‘대장금’을 방영한 데 이어, ‘선덕여왕’, ‘동이’를 연속 방영(※ ‘대장금’ 평균시청률 24.1%, 최고시청률 32.2%), 2012년 하반기부터 국영 MTV에서 ‘이산’ 및 ‘파스타’ 방영하였고, 한국문화원 주관으로 한국 영화 페스티벌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
- 2012.2월 주헝가리 부다페스트 한국문화원이 개원하여 우리나라와 헝가리간의 문화교류 및 한국문화 소개 및 전파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한국문화원의 상설 프로그램으로는 세종 학당 한국어 교실 운영, 한식체험 교실, 한국영화 상영, 한국 전통공예 실습, K-POP 교실, 태권도 교실 등이 있으며, 매년 한국문화페스티벌 및 한국영화제를 개최하고, 매월 2~3회 이상 공연, 전시 등 한국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다. 한국관련 기관 설치 현황

(1) 한국관련 대학 및 강좌 개설

- 헝가리 최고 명문대인 ELTE(Eötvös Loránd Tudományegyetem) 대학교 내 한국학과 개설 (2008년)
 - 인문대 동양 언어와 문화학부 한국어과, 3년 과정
 - 전공·부전공을 포함 90여명의 학생이 수강중

- ELTE 내륙아시아과 1997년부터 한국어 강의
 - ELTE 대학원 석사 과정 개설(2012년 9월)
 - ELTE 대학원 박사 과정 개설(2018년 9월)
- 부다페스트 코르비누스 대학교(Budapest Corvinus Egyetem, BCE)
 - 한국 경제 관련 강좌 등을 매학기 열고 있음.

(2) 한국 도서

- 온라인 검색 시 소장 통계
 - 혼가리 학술원 500권
 - ELTE대학 도서관 3,000권
 - 혼가리 세체니 국립도서관 2,500권
 - BCE 중앙 도서관 200권
 - 주 혼가리 한국 문화원 3,100권

(3) 한국학도서 보급

- 한국유학생들이 수학중인 혼가리 주요 대학교 도서관에 한국학 도서 300권 기증(페치대, 데브레첸대, 엘테대)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정기적 개최(주 혼가리 한국문화원)

라. 혼가리내 한국문화 홍보

(1) 한국 드라마의 연속 방영

- 유럽에서는 최초로 혼가리 국영 MTV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 TV 시리즈 ‘대장금’ (Jewel in the Palace)을 4차례에 걸쳐 방영한 후 2010.10월 ‘선덕여왕’, 2011.2월 ‘동이’, 2012.7월부터 ‘이산’을 방영함.

- ‘대장금’은 2008년도에는 아침, 점심시간대에 방영후 시청률이 올라가자 2009.9월~11월, 2010.1월~3월 각각 프라임 시간대 방영
 - ‘선덕여왕’과 ‘동이’는 주 5회 저녁 황금시간대 방영
- ‘대장금’ 시청률은 상당히 높은 51.4% 기록한 바, 우리 TV 드라마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낮은 유럽에서 우리 드라마 3편 방영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한국 드라마의 유럽 방송시장 진출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한국 영화 애호층 확대

- 2007년 최초로 한국영화 주간 행사를 시작으로, 현재 ‘헝가리 한국영화제’를 매년 개최중이며, 2014년 이후부터는 부다페스트 이외에도 데브레첸, 세게드, 피치 등 3개 지방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됨.
- 2018년 제11회 헝가리 한국영화제
※2018.11.5~11., 부다페스트·데브레첸·세게드·피치 등 4개 도시 6개 극장
 - 개막작 이창동 감독의 ‘버닝’을 시작으로, 총 21편의 한국영화 33회 상영, 총 관객 수 4,748명을 기록하며 유료관객 점유율 81.2%를 기록하는 등 헝가리 내 최대의 외국영화제로 자리매김

(3)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 2014년 한국·헝가리 수교 25주년 기념을 맞아 한국전통문화의 밤(1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전시회(4월), 단국대 예술단의 대규모 공연(5월), 국립합창단 공연(6월) 등 대규모 전통 국악 및 무용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헝가리인들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관련 헝가리인들의 동호회가 구성되어 ‘무궁화’(부다페스트) 및 ‘만월’(데브레첸) 한국전통무용단, ‘문방사우’ 한글서예 커뮤니티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4) 현지 한국문화 커뮤니티의 급속한 성장

- 2018.12월 현재, K-POP 팬클럽을 중심으로 하여 총 236개의 한국문화 커뮤니티가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시작된 한국문화원의 ‘한국문화페스티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무대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
- 특히 2017.5월, 19개의 한국문화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한유문화재단’을 설립, 이는 해외 현지인들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한국문화 관련 재단법인으로 기록됨.
 - 이후 2018.4월에는 최초로 부다페스트에서 ‘한유문화재단’에 의해 기획된 한국문화 축제가 개최

(5) 한류문화 홍보활동의 지방도시 및 주변국 확산

- 2014년 폐치시 졸네이 문화센터에서 ‘한국문화의 밤’(7월) 개최하여, 전통무용과 퓨전 국악 공연을 높은 호응 속에 성료함.
- 헝가리 최대 지역문화 축제인 커플츠 페스티벌(연인원 15만명 참여)에 한국 전통무용과 국악 공연단이 참여(8월)함.
- 2014.11월 한국영화제 행사를 지방도시 세게드 극장과 폐치시 시민회관에서 3일동안 개최하고, 한국 전통무용과 판소리 공연도 성공적으로 진행됨.
- 2014.7월 루마니아 크라이오바시에서 한국 전통무용단 및 국악팀이 참여하는 ‘한국문화의 밤’을 행사를 500여명 관객의 참여속에 성공적으로 개최, 2013년에도 해외문화예술봉사단이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ACUB홀 및 지방도시 망갈리아 문예회관에서 성공적으로 공연함.
- 이 외 슬로바키아 한국문화 공연(2013.9월), 헝가리 지방도시 바치시, 데브레첸시, 마르톤 바샤르 등지에서도 한국문화 관련 공연을 다수 추진함.

(6) 한국음식 홍보

- 2010.10월 국경일 행사와 연계해 “Taste of Korea” 개최
 - MTV, ATV의 현지 특별인터뷰와 우리 요리전문가가 생방송에 출연해 한국 요리 소개

- 2010년 부다페스트 일류 호텔에서 한국특선요리 판매코너 운영
 - “Taste of Korea”와 연계하여 우리 요리전문가들이 당시 일류호텔인 Marriott 호텔에서 한국 특선요리 판매
 - 음식 전문기자들을 초청하여 시연회 개최 및 호텔 판촉 홍보지를 통한 한식 홍보
- 2010년, 2011년 한국영화 주간 행사 계기 한식 리셉션 개최
- 2012.7.10. 주헝가리 한국문화원에서 (사)한국조리학회 한식모체소스 발표회
- 2013.9.5. 부다페스트 중앙시장 ‘한국의 날’ 행사 개최, 전통무용 공연 및 한복 체험과 함께 한식 및 한국식품 판매전 성료
- 2014.2.6. 경주대 한식팀을 초청, 한식 전시회 및 한식 체험 행사 개최
- 2019.4월 현재 한국문화원 내 현지인 대상 2개의 한국음식 체험 강좌 운영중
- 2019.5월 현재, 헝가리 최대의 음식문화 축제인 ‘고메 페스티벌’에 공식 참여

3. 관 광

가. 개 관

- 헝가리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부다페스트 등 헝가리의 주요도시들이 유럽에 위치한 다른 도시들에 비해 비교적 물가가 저렴하고 주변국과 연계하여 여행할 수 있는 도로망, 철도망이 잘 조성되어 있어 관광객 수 매년 증가세를 유지중임.
 - 헝가리 관광청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연간 헝가리 방문자는 5,700만명이며, 상업적 숙박 시설 이용 외국인은 594만명으로 추산
- ※ 헝가리 방문자수(공항 환승 포함) : 4,130만명(2011년)→4,360만명(2012년)→4,360만명(2013년)→4,600만명(2014년)→4,830만명(2015년)→5,290만명(2016년)→5,500만명(2017년)→5,770만명(2018년)

- 주요 관광지는 부다페스트시, 헤비트(Héviz), 히이두소보슬로(Hajdúszoboszló), 발라톤(Balaton) 호수 및 각 지방의 온천 요양소 등이며, 국가별 관광객 수는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이탈리아, 체코 등 인근 서구 국가가 가장 많고 최근에는 미국, 프랑스 등의 관광객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임.
 - 부다페스트의 ▲부다 왕궁, 세체니 다리, 국회의사당으로 연결되는 다뉴브 강변 지역과 ▲영웅광장으로부터 19세기 대표적 건축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언드라시 대로변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 기타 부다페스트 북쪽 다뉴브 밴드 지역, 쇼프론, 페치, 세게드 등이 주요 관광지
 - 헝가리 온천 지역, 발라톤 호수, 와인 산지 방문 관광객 및 의료 관광(치과 치료 및 온천 패키지 등) 프로그램 참가자도 증가 추세
- ※ 유네스코 세계 유산 : 자연유산으로는 Aggtelek 국립공원이 있고, 문화유산으로는 Hortobágy 국립공원, Hollókő 마을, Pannonhalma 중세 베네딕트 수도원, Pécs 로마유적지, Buda 성과 그 주변 강변, Andrásy 대로 등이 있으며, 그 외 Tokaj 지방과 Fertő호수 주변 10여개 마을이 있음.
- 헝가리의 관광정책 방향
 - 문화관광은 고유의 문화유산, 동시대의 문화 소개, 다양한 예술프로그램 참여 촉진, 종교적 건축의 보전과 부대 행사 통한 관광 활성화 등의 전략을 통해 구현되고 있음.
 - 관광객 편의 우선, 헝가리 주민들의 협력 추구
 - ※ (예) 문화유적지에 버스 주차 금지, 선박은 다뉴브강 부다 쪽에 정박 불가
 - 부다페스트 인근 지역과의 연계 관광 확산 : 관광객의 헝가리 체류기간을 늘리고, 새로운 관광지 활성화
 - 특정 시기와 지역에 편중 탈피 전략 추구 : 휴가 시즌 외에 다양한 이벤트를 배치하여 시기적으로 관광객 분산을 유도, 부다페스트 지역을 넘어선 관광의 전국화 추진

나. 한·헝 양국간 관광 교류

- 헝가리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예능, 다큐 등 국내 방송사의 방영 증가로 헝가리 및 주변국(크로아티아 등)에 대한 관광수요가 급증하면서 헝가리에 대한 관광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형가리 관광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 수는 2018년 약 17만 8천명으로, 이들은 형가리에서 평균 1.5일을 머무르고 있으며, 79%가 부다페스트 관광에 집중되어 있음.

※ 상기 통계수치는 형가리 내 정식으로 등록 된 숙박업체를 1박 이상 이용한 우리 국민 수

※ 형가리 관광청 통계 : 54,575명(2012년), 69,760명(2013년), 98,199명(2014년), 104,115명(2015년), 123,423명(2016년), 152,815명(2017년), 177,489명(2018년)

- 부다페스트 관광의 경우, ▲부다 왕궁, 세체니 다리, 국회의사당으로 연결되는 다뉴브 강변 지역과 ▲영웅광장으로부터 19세기 대표적 건축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언드라시 거리(유네스코 선정 문화유산) ▲페스트쪽의 성 이스트반성당, 변화한 거리인 바치거리 및 부다페스트 중앙시장 등에 집중되어 있음.
- 세체니 온천, 갤레르트 온천 등 부다페스트의 대표적 온천 외에도 중부 유럽 최대 내륙 호수인 발라頓 호수, 에게르, 토키이 등 와인 산지 방문객, 치과 치료 및 온천 패키지 프로그램 참가자도 증가하는 추세
 - 2009년 KBS 미니시리즈 아이리스, SBS 드라마 닥터이방인 등의 방송 드라마가 형가리를 배경으로 촬영되고, 인근 크로아티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형가리 관광 한국인도 증가하고 있음.
- 주재국 관광객의 대 한국 주요 관심사
 -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중심, 한국 문화 체험 관광객 증가
 - 유럽 최초로 한국 드라마 ‘대장금’의 성공적 TV 방영(08년 국영 TV에서 평균 24.1% 시청률 기록)도 한국 음식 및 문화에 대한 주재국민들의 관심 촉발
 - 2008년 ELTE 대학내 한국학과 개설, 주재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형가리 인력 고용 기회 제공 등으로 형가리 젊은층의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학생층의 한국 방문 및 한국 대학 교환 프로그램 참여도 증가 추세
 - 주재국내 K-POP 팬 등 유튜브를 통해 형성된 한류 팬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한류 연예인, 홍대 등 한국 젊은층 선호지역에 대한 방문 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형가리 태권도 동호인 중심으로 무주 태권도원 등 태권도 종주국 관련 지역 방문 문의도 증가

4. 교육·과학

가. 교육 제도

- 1961년 교육체제 개선에 관한 교육 법령이 헝가리 교육제도의 기본임.
- 공산주의 시절 모든 교육은 국립이며, 무료였으나, 1990년 이후 사립교육이 부활되고 국립 대학은 1998년부터 입시정원 증가로 현재 70:30으로 장학생과 자비생이 있음.
 - 자비생 등록금은 학과에 따라 학기당 500~3,500유로 정도(의대가 가장 높음)
- 헝가리는 2004.5월 EU 가입 이후 EU의 대학교육개혁(Bologna Process)에 보조를 맞추어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실시함.
 -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향상(현실 응용력 제고 등)
 - 강의실, 기숙사 등 학교시설 확충
 - 대학주변에 현대적인 지식센터 설립
- 현재 초등학교 1년부터 16세까지의 교육은 의무교육임.

과정	학교	내용(2018년 헝가리 통계청)
유치원	유치원(Nursery School)	3-6세 아동교육 (4,579개 기관)
초등교육	초등학교(Primary School)	4년제, 6년제, 8년제 3종류 (3,585개 기관)
중등교육	인문학교(Gimnázium) 기술학교 중등 실업학교	10 -18세까지 (8년제, 6년제, 4년제) 중·고등교육 (892개 기관) 14-18세 중·고등교육 (552개 기관) 14-18세 중·고등교육 (772개 기관)
고등교육	College University	3년제 전문대학 볼로냐 학제 도입으로 3년 학사, 2년 석사 (총 64개 기관, 283,350명 재학, 23,110명 교육자)

○ 헝가리 출신 역대 노벨 수상자(총 16명)

구 분	성 명	년 도	종 류
1	Philipp E. A. Von Lenard	1905	물리학(음극선)
2	Robert Barany	1915	생물학(어지러움증)
3	Richard Adolf Zsigmondy	1925	화 학(콜로이드 용액)
4	Albert Von Szent Gyorgy	1937	생물학(비타민 C)
5	George de Hevesy	1943	화 학(동위원소)
6	Georg Von Bekesy	1961	생물학(달팽이관)
7	Eugene P. Wigner	1963	물리학(원자핵)
8	Dennis Gábor	1971	물리학(홀로그램)
9	Milton Fridman	1976	경제학(통화이론)
10	Daniel Carleton Gajdusek	1976	생물학(크루병)
11	John C. Polanyi	1986	화 학(동역학화학반응)
12	Elie Wiesel	1986	평 화(홀로코스트)
13	George A. Olah	1994	화 학(카보양이온)
14	John C. Harsanyi	1994	경제학(게임이론)
15	Imre Kertesz	2002	문 학(홀로코스트)
16	Avram Hershko	2004	화 학(단백질 분해)

나. 한·헝 과학기술협력

- 1992.3월 헝가리 부다공대 내 양국 공동출원으로 한-헝가리 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 2009 한-헝가리 정부간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체계 20주년 양국간 기초과학 협력강화 방안 마련 권고(국회 교과위)
- 2009.9월 박근혜 대통령 특사, 헝가리와 기초과학기술 협력 협의
- 2009.10월 기초기술연구회-헝가리학술원 간 연구협력 MOU 체결
- 2009.12월 한-헝가리 정상회담에서 공동연구실 개소 합의
- 2010.10월 한-헝가리 공동연구실 최초 개소
- 2012.10월 기초기술연구회-헝가리학술원 MOU 갱신
- 2014.8월 현재 총 4개 공동연구실 운영 중
- 2018.3월 제9차 한-헝가리 과기공동위 개최(헝가리 부다페스트)

- 예산 : 초기 3년간 선정과제당 매년 2억 8천~3억 5천만원 지원
- 운영기간 : 3년(연차점검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5. 종교

- 서기 1000년 헝가리의 이슈트반 왕이 로마 카톨릭을 국교로 받아들인 이래 카톨릭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2차 대전 직후 Rakocsi 당 제1서기 통치 시대에는 종교적 박해가 진행됨.
- 1956년 “헝가리 봉기” 직전 정부는 인민에 대한 종교의 역할을 인정하였으나 완전한 종교의 자유는 아니었으며, “헝가리 봉기” 이후 교회가 다시 국가 통제를 받음.
- 1960년대 중반에 교회 활동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 1964.9.15. 동구권 국가 중 최초로 Vatican과 교회 협정을 체결한 후 바티칸에서 임명한 대주교를 접수하고 있음.
- 2011.7.11. 종교법 개정을 통해 14개 전통종교만 종교단체로 인정하고 이를 종교단체에만 국민 세금의 1% 종교세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음.
 - 종교법 개정 이유는 3,000여개의 단체가 종교법인으로 등록하여 각종 세제혜택만 누리고 실제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임.
- 각 종교별 분포는 카톨릭(37.2%), 개신교(Reformed Church(13.8%), 그리스정교(1.8%) 등임.

6. 교통

- 육로
 - 철도 : 8,057Km (3,060Km는 전철)
 - 도로 : 32,006Km(고속도로와 분기점 포함 총 1,973Km)
- 해운 : 내륙수도 1,638Km, 소규모 상선대 보유(다뉴브강과 지중해 연결)
- 항공
 - 항공사 : Malev 항공사가 구주 및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선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영 악화로 2011.2월 파산하고 유럽 대표적인 항가리계 저가항공인 Wizz Air가 국영항공사의 역할 수행
 - 공항 : Liszt Ferenc 국제공항은 부다페스트 중심으로부터 16Km 지점에 위치



VIII. 한 · 헝가리 관계

1. 한국과 헝가리의 조우
2. 기본관계
3. 정무관계
4. 경제관계
5. 한국 문화원 설립
6. 재외동포 현황
7. 친선협회

1. 한국과 헝가리의 조우

- (최초 소개) 1890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해군 군의관이었던 가슈파르(Ferenc Gáspár)가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협상을 위해 한국을 방문, 한국을 헝가리에 최초로 소개함.
※ 조선왕국-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간 우호통상항해 조약은 1892.6.23. 체결
- (고종황제 알현 헝가리인) 1902년 베이(Péter Vay) 주교가 헝가리인으로서는 고종황제를 최초로 알현, 당시 궁궐 모습과 명성황후 시해, 일본의 조선에 대한 야욕을 우려하는 기록을 남김.
- (코리아, 고요한 아침의 나라) 1907년과 1920년대 초 한국을 방문한 민속학자 버라토시(Benedek Barátosi)는 헝가리에 한국을 소개하는 최초의 단행본 ‘코리아, 조용한 아침의 나라’(1927)를 집필, 그간 한국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정정하는데 노력함.
- (안익태 선생의 발자취) 안익태 선생은 1938~1941년간 헝가리 국비 장학생으로 리스트(Liszt) 음악원에서 당대 음악 교수법의 대가인 코다이(Zoltán Kodály)의 사사를 받았으며, 동기간 중 ‘코리아 환타지’를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로 공연함.
※ 2012.5.11. 안익태 선생의 동상이 헝가리-한국 친선협회 세괴(Andrea Szegő) 회장의 노력과 서울시의 재정 지원으로 부다페스트 시민공원 내에 건립되어 우리나라와 헝가리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담당
- (헝가리 혁명과 한국) 헝가리인들이 소련의 탱크에 맨 몸으로 맞선 1956년 헝가리 혁명은, 반공을 국시로 한 이승만 정권하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일깨우고 반공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로 작용함.
※ 우리 대학생들은 ‘헝가리 자유 수호 학도 의용군’을 조직하여 혁명에 직접 참가하려 하였으며, 당시 이 운동의 리더였던 故이만섭 국회의장이 이 공로로 2002년 헝가리 국가 최고 훈장을 받음. 또한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신분으로 다그 함마술트 당시 유엔 사무총장에게 헝가리의 자유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보냄.

2. 기본관계

가. 연 혁

- 1892.6.23. 조선왕국-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간 우호통상항해 조약 서명(1893.10.5. 비준서 교환)
- 1988.8.26. 한·헝가리 상주대표부 설치협정 체결
- 1988.10.25. 주헝가리 대한민국 상주대표부 설치
- 1988.12.7. 주한 헝가리 인민공화국 상주대표부 설치
- 1989.2.1.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동 일자로 상주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

※ 舊동구권 국가 최초로 외교관계 수립. 헝가리와 외교관계 수립 후 이를 발판으로 폴란드('89.11월), 유고슬라비아('89.12월), 체코슬로바키아('90.3월), 소련('90.9월), 중국('92.8월)과 각각 수교함으로써 우리의 북방외교를 완성

나. 협정체결 현황

정부간

- 1988.10월 체육협력에 관한 의정서(양국 체육부간 약정)
- 1988.12월 투자보장협정
- 1989.2월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2004.5.1. 헝가리의 EU 가입에 따라 종료)
- 1989.2월 관광협력 의정서
문화협정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1991.3월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의 관계조항으로 흡수)

- 1989.3월 이중과세방지 협정
과학기술협력 협정
- 1989.11월 항공 협정
- 1991.3월 사증면제 협정
- 2005.4월 경제 협력 협정
- 2006.5월 사회보장 협정
- 2013.4월 워킹홀리데이 협정
- 2013.10월 원자력 협력 협정
- 2014.11월 항공 협정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 2015.12월 군사비밀정보교환 협정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간

- KOTRA-헝가리 상공회의소간 업무 협력 합의서(88.8월)
- 단국대학교-부다페스트 공과대학간 자매결연 합의서(89.2월)
- 한국방송공사-헝가리 국영방송사간 방송 협력 합의서(89.3월)
- 국제문화교류협회-헝가리 국제문화교류처간 문화교류 약정(89.3월)
- 한국 수출입은행-헝가리 경제·시장 정보 연구소간 투자정보 교환 및 협력에 관한 약정(89.3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세계경제연구소(IWE)간 협력 약정(91.11월)
- 중소기업진흥공단-헝가리 무역개발청(ITDH)간 협력 약정(98.9월)

- 광주과기원-부다페스트 공대간 협력약정(2000.4월)
- 충북도청-페츠시간 교류협력의향서(2000.5월)
- 서울특별시-부다페스트시간 경제, 문화, 관광분야 협력에 관한 합의서(2009.9월)
- 국립외교원-외교통상연구원간 양해각서 체결(2017.11월)

다. 한·헝가리 위원회 결성 현황

명 칭	구 성	근 거
(행정부간)		
○ 외교부정책협의회 ○ 경제공동위원회 ○ 문화공동위원회 ○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양국 외교부 양국 대표단 구성 " " " "	양국 외교부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경제협력협정 문화협정 과학기술협정
(입법부간)	양국 의회간 구성	
(민간기관간)		
○ 민간경제협력위원회 ○ 원탁학술회의	대한상공회의소, 헝가리 상공회의소 연세대 동서문제 연구원, 헝가리 경제계획 연구원	MOU

라. 자매결연 현황

- 대전광역시-부다페스트市(1994.4.20.)
- 경상남도-페이이르州(1997.4.24.)
- 아산시-미스콜츠市(2011.11.14.)
- 금산군-두녀우이바로슈市(2013.5.28.)

3. 정무관계

가. 對헝가리 정책 기본방향

-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존중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헝가리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중시함.

나. 헝가리의 對한반도 정책

- 헝가리는 중동구권 국가중 가장 현실주의적인 대한반도 정책을 시행함.
 - 중동구권 국가중 최초로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북방정책의 시초가 되었으며, 우리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UN등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입장 적극 지지
 - 경제, 통상, 문화협력 등 제반분야에서 우리와의 실질협력 관계 중시. 특히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에 우선순위 부여
- 對북한 관련, 헝가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지지해 왔으며, 우리 정부의 기본 정책노선 및 계기별 입장에 동의하고 협력해 나간다는 근간 유지해옴.
 - 현재 헝가리의 대북 관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

다. 주요인사 교류

(1) 방 형

- 1985.9월 이재환 체육부장관
- 1987.3월 이세기 체육부장관
- 1988.11월 조상호 체육부장관
- 1988.12월 신동원 외무차관
- 1989.2월 평민당 김대중 총재(유럽 5개국 순방시)

- 1989.3월 최호중 외무부장관(Varkonyi 외무장관 초청)
- 1989.4월 국회 문공위 정대철 위원장
- 1989.11월 노태우 대통령
- 1990.6월 김운용 대통령 특사(IOC 집행위원)
- 1990.7월 국회 동자위 시찰단(단장 : 최형우 위원장)
- 1991.5월 송언종 체신부장관
- 1991.8월 한국·헝가리 친선협회 사절단(단장 : 신철균 의원)
- 1991.8월 국회 건설위 시찰단(단장 : 김용채 위원장)
- 1991.12월 이진설 건설부장관
- 1992.2월 이진삼 체육청소년부
- 1992.6월 김진현 과기처장관
- 1993.4월 송정숙 보사부장관
- 1993.6월 오명 EXPO 위원장
- 1995.5월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 1995.10월 이시윤 감사원장
- 1996.5월 이수성 국무총리
- 1997.5월 의원친선협회 사절단(단장 : 현경대의원)
- 1997.5월 권숙일 과기처장관
- 1998.10월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 2001.9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 2001.12월 김대중 대통령
- 2002.3월 이만섭 국회의장

- 2018.9월 이용섭 광주시장
- 2019.5월 강경화 외교장관

(2) 방 한

- 1985.11월 메줘시(Medgyessy) 재무부 차관, 멜레거(Melega) 대외무역부 차관
- 제40차 IBRD/IMF 서울총회 참가
- 1988.9월 데악(Deák) 청년 체육부장관
- 1989.1월 호른(Horn) 외무차관
- 1989.3월 서보(Szabó) 농업식품부차관
- 1989.3월 케메네슈(Kemenes) 국가계획청 국무비서
- 1989.4월 체흐(Cseh) 공업부차관
- 1989.10월 메줘시(Medgyessy) 부수상
- 1990.3월 테르지(Derzsi) 교통·체신·건설장관
- 1990.11월 꼰츠(Göncz) 대통령
- 1991.1월 쇼모지(Somogyi) 외무차관
- 1991.3월 예센스키(Jeszénszky) 외무장관
- 1991.4월 카다르(Kádár) 대외경제부장관
- 1991.4월 수르얀(Surján) 국민복지부장관
- 1991.5월 자유민주연합 의원단
(단장 : 센트 이반니 Szent Iványi 의원)
- 1991.5월 서비드(Szabad) 국회의장
- 1993.10월 뢰린츠(Lörincz) 군총사령관
- 1993.10월 풍그라츠(Pongrácz) 국유재산청청장

- 1993.10월 카다르(Kádár) 대외경제부장관
- 1993.11월 귄츠(Göncz) 대통령 (비공식)
- 1994.6월 헤겔마이에르(Hagelmayer) 감사원장
- 1994.11월 팔(Pál) 상공장관
- 1995.10월 소모지(Somogyi) 외무차관
- 1996.12월 호른(Horn) 수상
- 1997.9월 코로디(Kóródi) 국회부의장
- 2000.8월 토르잔(Torgyán) 농업장관(독립소지주당 당수)
- 2000.11월 베버(Baba) 외교부차관
- 2000.11월 칠리그(Csillag) 경제교통장관
- 2003.11월 호른(Horn) 전총리
- 2005.4월 주르차니(Gyurcsány) 총리
- 2005.10월 코커(Kóka) 경제교통부장관
- 2006.8월 실리(Szili) 국회의장
- 2007.4월 귄츠(Göncz) 외교장관
- 2009.3월 그라프(Gráf) 농업장관
- 2009.10월 국회외교위원회(Németh 국회 외교위원장)
- 2009.10월 팔린카쉬(Pálinkás) 과학장
- 2009.11월 쇼욤(Solyom) 대통령
- 2012.3월 슈미트(Schmitt) 대통령(핵안보정상회의)
- 2013.5월 여컵(Jakab) 국회부의장
- 2013.10월 머르토니(Martonyi) 외교장관
- 2013.10월 씨야르토(Szijjártó) 총리실 대외경제담당 차관

- 2013.12월 더락(Darák) 대법원장
- 2013.11월 베르거(Varga) 국가경제부장관
- 2013.11월 헨데(Hende) 국방부장관
- 2014.9월 페출러이(Paczolay) 헌법재판소장
- 2014.9월 벤코(Benkő) 총사령관
- 2014.11월 오르반(Orbán) 총리
- 2015.4월 아데르(Áder) 대통령(세계 물포럼 참석)
- 2016.5월 코비르(Kövér) 국회의장
- 2016.12월 씨야르토(Szijjártó) 외교장관
- 2017.6월 여컵(Jakab) 국회부의장(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4. 경제관계

가. 교역관계

- 2018년 기준, 양국 교역액은 약 27억불(수출 20억 달러, 수입 7억 달러)로 헝가리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과 함께 중동부 유럽 3대 수출시장임.
 ※ 교역규모(억불) : 26(2013년) → 20(2014년) → 16(2015년) → 16(2016년) → 19(2017년) → 27(2018년)
- 헝가리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의 투자 확장으로 협력 기업의 동반 진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일반 기계류, 부품 소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반면, 한국의 對헝가리 수입 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2018년 對헝가리 교역 흑자가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
 ※ 무역수지(억불) : 16(2013년) → 10(2014년) → 3(2015년) → 3(2016년) → 5(2017년) → 13(2018년)
 ※ 삼성전자, 삼성SDI, 롯데첨단소재, 셀트리온 4개사가 2018년 우리나라의 對헝가리 수출의 59.3%를 차지

한국-헝가리 연도별 무역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 출	금액	2,114	1,481	1016	953	1,206	1,967
	증가율	82.6	△29.9	△36.8	△6.3	26.5	63.1
수 입	금액	467	515	735	651	706	694
	증가율	△1.7	10.3	12.3	△11.5	8.4	△1.7
무역수지		1,647	966	281	302	500	1,273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출품 : 농약 및 의료용품, 기계류, 컴퓨터, 자동차 및 관련 부품 등
- 주요 수입품 : 원동기 및 펌프,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계측제어분석기, 도자제품 등

한국-헝가리 품목별 교역현황(2018년)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기계류 및 부분품	538	220.1	차량 및 부분품	196	92.1
2	전기기기 및 부분품	383	141.4	전기기기 및 부분품	157	144.0
3	측정기기	236	164.6	기계류 및 부분품	141	294.1
4	의료용품	232	106.1	측정기기	74	143.0
5	차량 및 부분품	172	78.4	도자제품	17	47.0
	수출 총계	1,967	63.1	수입 총계	694	△1.7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투자관계

- 2018년 누계 기준(신고) 우리기업의 對헝가리 투자는 약 7.1억불로, 투자분야는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건설, 도소매업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8년의 경우,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도소매업, 건설업 순

- 2019.3월 기준, 혼가리 진출 우리기업 수는 139개, 고용인원은 9,162명이고, 2017년 기준 매출액은 47.5억 유로(헝가리 기업정보 사이트 HBI 기준)

한국-헝가리 투자 현황

(단위 : 백만불,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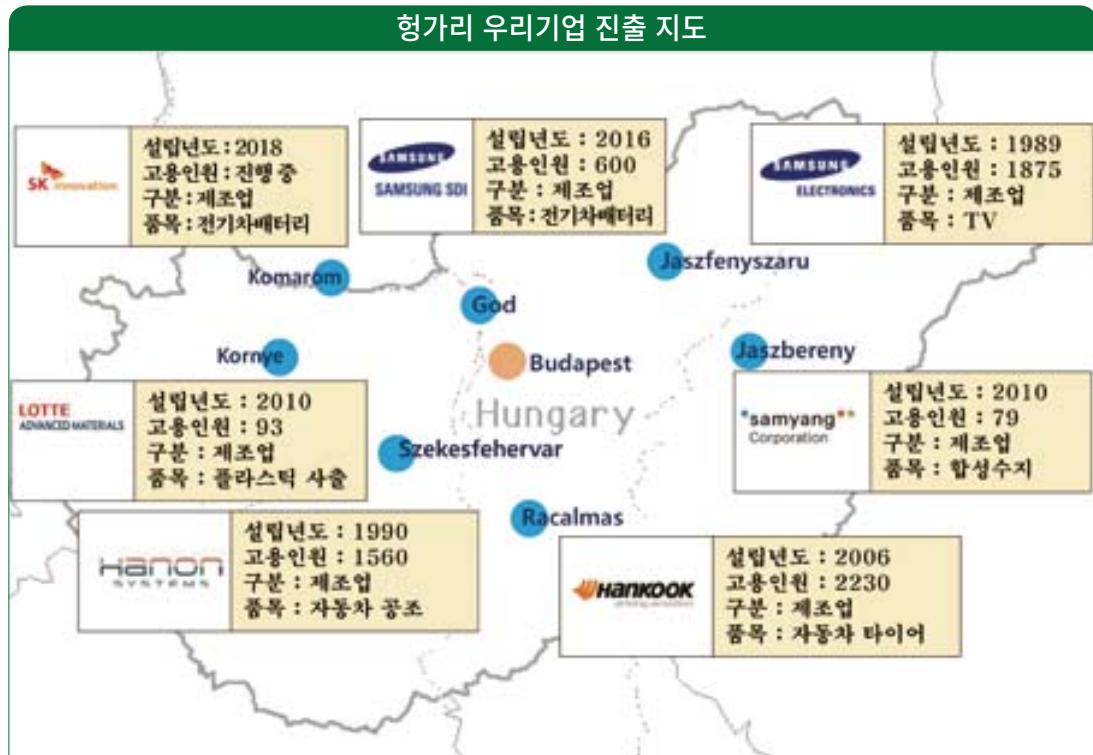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
對 헝 투자	금액	19.4	2.6	36.8	14.1	1.3	0.4	42.1	9.0	0.2	44.1	9.4	407.7	1,004.2
	건수	25	10	13	12	5	3	14	13	4	14	23	48	272
對 韓 투자	금액	1.5	5.7	24.1	29.4	24.6	-	-	-	-	-	-	-	201
	건수	2	3	4	9	6	-	-	-	-	-	-	-	31

* 주 : 한국 통계자료와 혼가리 통계자료 상이. 통계해석 시 유의. 2007년 이전 투자액 합산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대헝가리 진출이 활발하며, 생산법인 형태로 진출한 기업 중 SK Innovation, 삼성, 한국타이어 순으로 투자 규모가 크고, 협력기업 진출도 다수임.
- 2018년 제조업 부문은 전체 투자금액의 91.2%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SK Innovation은 2018.3월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 기공식 개최, 2020년까지 건설비, 운전자본 등 투자 예정

※ SK 이노베이션은 총 1조 8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1차: 2017.11월, 2차: 2019.2월), 삼성 SDI는 약 4천억원의 2차 투자를 검토중



* 자료원 : 코트라 부다페스트 무역관 조사·작성

5. 한국 문화원 설립

- 문화원을 통해 공공 외교활동을 강화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 문화의 헝가리 및 주변국으로의 확산시키는 한국의 문화, 홍보 종합센터의 역할을 수행함.
- 위치 : Budapest Csörsz u. 49-51 (Momentum office building)
- 설립 : 2012.1.2.

6. 재외동포 현황

가. 재헝가리 한국동포

- 정부 유관기관 직원가족, 상사 직원가족, 선교사 및 유학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12월 기준 형가리내 재외동포수는 약 1,735명
 - 한인상공회의소 : 무역관 포함 130여개 주재 한국진출 기업, 동포업체 대상
 - 한인교회 : 부다페스트 한인교회, 부다페스트 순복음교회, 부다페스트 한인은혜교회, 부다페스트 장로교회
 - 한인학교 : 유치원반, 초등반 6반, 중등반 2반 총 74명 학생 재학, 교사 10명(헝가리어 성인반 별도 구성 운영중)

※ 교민의 대다수가 지상사 직원과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한인회는 미결성, 한인상공회의소가 실질적인 한인회 역할 담당

나. 주한 헝가리인 : 약 47명 (2017년 기준)

7. 친선협회(Hungary-Korea Society)

가. 의원친선협회

- 우리측은 1989.3월, 헝가리측은 1989.11월 최초 결성
- 구성 및 임원(2019.3월 현재)
 - 헝가리 측
 - 회장 : Laszlo L. SIMON(Fidesz)
 - 부회장 : Zoltan TESSELY(Fidesz), Zoltan MAGYAR(Jobbik)
 - 그 외 이사 8명

- 한국측
 - 회장 : 황주홍(더불어민주당)
 - 부회장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이철규(자유한국당)
 - 그 외 이사 4명

나. 헝가리·한국 친선협회(Hungary-Korea Society)

- 설립일 : 2003.12.11.
- 등록일 : 2004.5.18.(공식단체로 법원에 정식 등록)
- 회장 : Andrea Szegő 교수



IX. 헝가리 · 북한 관계

1. 기본관계
2. 교류현황

1. 기본관계

- 1948.11월 외교관계 수립(공사급 외교관계)
- 1954.1월 대사급 외교관계로 승격
- 1989.2월 한국·헝가리 수교에 대한 반발로 대사대리급 관계로 격하
- 1998.3월 대사급 관계로 복귀
- 1999.11월 상주공관 상호 폐쇄
 - 현재 주오스트리아 북한대사 및 주한 헝가리대사가 상대국 겸임

2. 교류현황

가. 정치관계

- 양국간 실질관계는 미미한 수준이며, 정기적인 고위인사 교류도 별무한 상황임.
 - 2008.10.27.~30. 외교부 O. Rona 아태국장이 북경 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방북, 양국간 정책협의회 개최
 - 민주주의전환센터(ICDT)에서 북한 외교관 3명(2008.5.31.~7.1.)과 의사 3명(2009.2.20.~3.20.)을 초청 연수
 - 2014.4.9.~11. 외교부 P. Jakab 아태국장이 Csaba 주한헝가리대사 신임장 제정 계기에 방북, 양국간 정무관계 협의회 개최
- 오르반 정부(2010년~현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규탄성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등 대북 강경기조를 견지하고 있음.
 - 주한 헝가리 대사의 신임장 제정 목적차 방북하는 경우 외에 주요 인사의 방북 실적없음.

- 그러나, 혁가리 노동당과 북한 노동당간 교류는 유지(2019.9월, 혁가리 노동단 대표단, 북 초청으로 방북)

나. 경제관계

- 혁가리 북한간 교역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
 - 혁가리 대북 수출 : 없음(2018)
 - 혁가리 대북 수입 : 약 3,000불(2018)



부 록

1. 주요인사 인적사항
2. 세계 속의 헝가리

[부록 1. 주요인사 인적사항]

◆ János Áder 대통령

성명	○ 야노슈 <u>아데르</u> (János Áder)	
생년월일	○ 1959.5.9.	
학력	○ 외트뵈시 로란드(Eötvös Loránd University, ELTE) 법대 졸(1983 변호사 자격 소지)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 청년민주동맹(Fidesz) 창당 멤버 ○ 1990~2009.6. 국회의원(5선) ○ 1990~1992 원내부대표 ○ 1992~1993 Fidesz당 선대위장 ○ 1997~1998 국회부의장 ○ 1998~2002 국회의장 ○ 2003~2006 Fidesz당 원내대표 ○ 2006~2009.6. 국회부의장 ○ 2009.6.~2012.5. EU 의회의원 ○ 2012.5. 제5대 대통령 취임(임기 5년) ○ 2017.5. 제6대 대통령 취임(연임, 임기 5년) 	
사용언어	○ 영어	
가족관계	○ 부인(현직 판사) 및 4자녀	

◆ Viktor Orbán 총리

성명	o 빅토르 오르반 (Viktor Orbán)	
생년월일	o 1963.5.23.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1981 「블랑카 테레키」고등학교 졸업 o 1981~1982 군복무 o 1987 「ELTE」대학교 법학과 졸업 o 1989~1990 영국 「옥스퍼드」대학 수학 (영국 자유정치 철학사 전공) ※「소로스」재단 장학생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1987.11~1988.3. 농업부 영농훈련연구소 근무 ※ 견습 사회학연구사로서 영농프로그램 등에 참여 o 1988.3. 청년민주동맹(Fidesz) 창설 당원으로 참가 o 1988.3.~1989.10. 청년민주동맹 대변인 o 1990~현재 국회의원 o 1993.5~현재 청년민주동맹 총재 o 1998.7.~2002.4. 총리(독립소자주당 및 민주포럼과 연립) o 2006 총선 패배 o 2010.4. 총선 승리(2기 집권) o 2010~ 총리 o 2014.4. 총선 승리(3기 집권) o 2018.3. 총선 승리(4기 집권) 	
사용언어	o 헝가리어	
가족관계	o 부인, 1남 4녀	

◆ László Kövér 국회의장

성명	o 라슬로 쾨비르 (László Kövér)	
생년월일	o 1959.12.29.	
학력	o 부다페스트 ELTE 대학교 법학 석사(1986)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1984~1990 Századvég 학술지 ‘사회이론’ 창간 o 1987~1988 헝가리학술원(MTA) Soros재단 장학생 o 1988.5. Fidesz 창당 발기인 o 1989~ Fidesz 전국선거대책위원회 o 1997~1999 Fidesz 수석 부대표 o 2000.1.~2001.5. Fidesz 당 대표 o 2002~ Fidesz 전국선거대책위원장 o 1990~ 현재 국회의원 o 1998.6.~2000.5. 국가안보담당 무임소 장관 o 2000.5.~2002.5. 원내 부대표 o 2002.5.~2006 국회 국방·국가안보위원장 o 2006.5. 국회 안보위원회 위원 o 2010.7.~ 현재 국회의장(3연임) 	
특기사항	o 2016.5. 공식 방한	
사용언어	o 영어(간단한 대화 가능)	
가족관계	o 부인(현직 판사) 및 3자녀	

◆ Péter Darák 대법원장

성명	o 페테르 더락 (Péter Darák)	
생년월일	o 1963년생	
학력	o Janus Pannonius대 법대 졸 (Pecs시 소재) - 동 대학 석사 및 박사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1991~1997 Zalaegerszeg지방법원 판사 o 1997~1999 Zalaegerszeg지방법원 부장 판사 o 2000~2002 대법원 근무 o 2002 법무부 민사국 근무, 헝가리 민사법관협회장 o 2003 대법원 행정법 담당 판사 o 2000~2004 Zalaegerszeg 금융회계 전문대 교수 o 2001~현재 Pazmany Peter대 정법학과 교수 o 2005~현재 ELTE대 법대 강사 o 2010.4. 신현법 제정에 참여 o 2012~현재 대법원장 임명 	
사용언어	o 영어(중급), 독일어(고급)	
가족관계	o 부인 및 자녀	

◆ Tamás Sulyok 헌법재판소장

성명	o 터마슈 <u>슈록</u> (Tamás Sulyok)	
생년월일	o 1956.3.24.	
학력	o 세게드 법대 졸업(1980) o 법학박사 취득(2013)	
경력	o 1982~1991 Csongrad주 법원 근무 o 1991~2000 변호사 활동 o 2000~2014 주오스트리아 명예영사 o 2005~ 세계드대 초빙 교수 o 2014.9.~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o 2015.4.~ 헌법재판소 부소장 o 2016.11.~ 헌법재판소장 임명	
가족관계	o 부인 및 2자녀	

◆ Péter Szijjártó 외교통상부장관

성명	○ 페테르 씨야르토 (Péter Szijjártó)	
생년월일	○ 1978.10.30.	
학력	○ 부다페스트 경제 및 공공행정 대학교 졸업 (국제관계 전공)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Fidesz 입당 ○ 1998~2002 Györ 시의회 대표 ○ 2002~현재 국회의원(4선) ○ 2005~2009 FIDELITAZ(Fidesz 산하 청년조직) 회장 ○ 2006~2010 Györ 시의회 대표(재선) ○ 2010.6.~2012.6. 총리실 대변인 및 공보·국제관계팀장 ○ 2012.6.~2014.6. 총리실 외교·대외경제차관 ○ 2012.7. 8개 경제위원회 의장(아시아국가와의 통상정책 및 서부발칸국가의 EU통합 담당) ○ 2013.8. 헝-러시아, 헝-중국 경제위원회 위원장 ○ 2014.6.~ 외교통상부 차관(통상 및 의회담당) ○ 2014.9.24.~현재 외교통상부 장관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10. 투자유치차 방한(우리부 차관 및 산업부 차관 면담) ○ 2016.12. 공식 방문(양자 외교장관 회담 등) 	
사용언어	○ 영어(유창)	
가족관계	○ 부인 및 1자녀	

[부록 2. 세계 속의 헝가리]

1. 헝가리 광시곡(Franz. Liszt, Z. Kodály, B. Bartók)

- 헝가리에서 출생한 리스트(Franz. Liszt)는 9세 때부터 무대에서 연주를 시작한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빈에서 체르니(Carl Czerny)와 살리에리(Antonio Salieri)에게 사사받음.
- 리스트는 헝가리 민속음악 장르 중 집시들이 주로 연주하는 베르분코시(Verbunkos)를 이용하여 작곡하였으며, 1869-1886년 헝가리로 귀환하여 음대에서 제자 양성을 위해 혼신함.
 - 음대는 언드라쉬(Andrássy)대로에 위치해 있으며 당시 파리에 살았던 리스트를 위해 음대 건물을 따로 마련하여 거주하면서 제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구성, 지금은 박물관, 연구소, 도서관 등으로 운영
- 헝가리 작곡가 코다이(Z. Kodály)와 베르톡(B. Bartók)의 가장 큰 업적은 구전되던 헝가리 민요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것이며, 특히 코다이는 음악교육법을 개발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짐.
 -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코다이 음악교육법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있으며, 특히 어린 나이부터 음악교육을 하면 뇌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짐.

※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의 헝가리 유학시(1938~1941) 코다이 선생으로부터 작곡이론 사사

2. 인류를 위한 발명

-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수의 발명품이 헝가리인들에 의해 발명됨.
 - 성냥 (1836년, János Irinyi)
 - 헬리콥터 (1928년, Oszkár Asboth와 Tódor Kármán)
 - 자동변속기 (1932년, László Bíró)
 - 컬러TV (1940년, Péter C. Goldmárk)
 - 볼펜 (1943년, László József Bíró)
 - 컴퓨터 기초원리 (1946년, John von Neumann과 János Kemény)
 - 루빅스 큐브 (Rubik's Cube) (1975년, Ernő Rubik)

- Micro Soft Word, Excel 프로그램 개발(Charles Simonyi)
- 최초 민간인 우주여행(Dr. Charles Simonyi)

3. 헝가리 출신 노벨상 수상자들

- 헝가리 태생 노벨상 수상자는 총 16명으로, 물리 3명, 의학 4명, 화학 5명, 문학 1명, 경제학 2명, 평화 1명
 - 이들 대부분이 유대인 출신으로 역사의 격랑 속에서 일찍 헝가리를 떠나 다른 국적을 취득한 후 연구실적으로 수상
- 센트조르지(Albert von Szent-Györgyi) 박사는 비타민C를 파프리카에서 대량 추출하는데 성공하여 1937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함.
 - 헝가리 노벨상 수상자 중 유일하게 센트조르지지만 헝가리에서 직접상을 받으려 스웨덴에 간 학자
 - 그는 모든 교육을 헝가리에서 받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헝가리로 돌아와 세계드대학 교수로 강의 및 연구 도중 비타민 C를 발견하여 노벨상 수상

4. 헤렌드(Herend) 도자기



- 세계적으로 이름난 헝가리 도자기 회사는 헤렌드(Herend), 줄네이(Zsolnay), 홀로하저(Hollóháza)이며, 헤렌드가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은 1851년 영국에서 개최된 세계박람회 때부터임.
 - 동 박람회에서 헤렌드의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당시 출품한 문양을 영국 빅토리아 왕실에서 주문하면서 빅토리아 문양이 알려지게 됨.(한국인도 가장 선호)

- 100% 수제품으로 유명하고 생산의 80%를 전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
- 졸네이는 헤렌드에 비하면 비교적 저렴하고 화려한 매화문양과 금박 테두리 문양이 가장 인기 있으며, 창업주 빌모슈 졸네이(Vilmos ZSOLANY)가 개발한 고온강화요법(Pyrogranite)을 1886년부터 이용하여 현존 아르누보 건축물의 아름다운 모자이크지붕에 기와로 사용됨.
 - 졸네이 도자기 기술을 이용한 대표적 건물은 마챠슈 성당, 지질학 연구소, 우정박물관, 산업 박물관
- 가장 저렴한 도자기인 홀로하저는 전통적이고 실용적인 제품에서 예술적인 도자기로 발전, 유일하게 민영화되지 않은 회사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

5. 헝가리의 전통 음식

- ‘구야쉬(Gulyás)’(영어식으로는 “굴라시”) 스프는 헝가리의 가장 전통적인 음식으로 헝가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찾고 즐기는 음식임.
 - 우리나라 음식 가운데 육개장이나 감자탕 맛과 유사
- 헝가리 사람들은 우리처럼 매운 맛을 좋아하며, 특히 고추(파프리카)와 마늘, 파 등을 즐기는 편
 - 파프리카는 향신료로서 매운맛과 단맛 두 종류가 있고, 전통음식에서 샐러드까지 다양하게 사용하여 대부분의 음식이 먹음직스러운 붉은 색을 띠고 있음.
 - 이 외에 생선스프(민물매운탕과 유사하며 지방마다 다른 맛), 거위간 요리, 고기와 쌀로 채운 양배추말이(김치찌개와 유사)등이 있음.

6. 다뉴브강(Donau, Danube, Duna)

- 다뉴브 강에 대한 각 국가의 언어 표현: Donau(독), Danube(영), Duna(헝)로 총 8개국을 통과 하며 부다페스트 내에는 10여개 교량이 각각 다른 양식으로 건설되어 있음.
- “Duna 강의 진주”라고 불리는 부다페스트는 Duna 강변 도시중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강가 양쪽에 중심지와 볼거리가 모여 있어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
 - 대표적인 볼거리는 국회, 부다성과 왕궁, 어부의 요새, 자유의 기념비, 성 이슈트반 성당 등

7. Joszef Pulitzer와 Pulitzer상

- 세계적인 기자 풀리처는 1847년 헝가리에서 유대인으로 출생한 후 도미하여 엘로우 저널리즘을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부정부패 사건, 정치 스캔들, 경제 비리 등의 사실을 파헤쳐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미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함.
- ‘기자들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풀리처상은 매년 일간지나 주간지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을 선정하여 기자들에게 주는 가장 저명한 상으로 1917년 제정되어 매년 콜롬비아대학에서 5월에 수상식을 개최함.
 - 언론 14개, 문학 5개 부문

8. Adolf Zukor와 William Fox

- 어돌프 주코르(Adolf Zukor)는 1873년 헝가리 리체(Ricse)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출생하여 16세 때 도미, 프로듀서로 활동하면서 Paramount Pictures 영화사 설립, 할리우드 영화제작의 선구자로 활동
- 윌리엄 폭스(William Fox) 역시 유대인으로 1879년 헝가리 톨츠바(Tolcsva)에서 출생하여 10개월 때 미국으로 이민, 어머니의 성을 따라 본명 Vilmos Fried에서 미국식인 William Fox로 변경함.
 - 폭스는 무성영화 시대를 종료하고 유성영화 시대를 연 인물이며, ‘star’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여 연예인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사고, 태도, 패션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1929년 파산했으나 다시 20세기 폭스사로 부활

9. 헝가리계 Hollywood Star들

- 오스카 감독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감독으로 ‘카사블랑카 (Casablanca)’(1942)의 마이클 커티즈(Michael Curtiz)와 ‘My Fair Lady’(1964)의 조지 큐커(George Cukor)가 있음.
- 연기자로는 원조 드라큘라 역으로 유명한 빌러 루고쉬(Béla Lugosi), ‘Some Like it Hot’(1959)에서 마를린 몬로와 연기한 토니 커티스(Tony Curtis), ‘Casablanca’와 ‘The Raven’에서 연기한 피터 로레(Peter Lorre), 저저 가보(Zsa Zsa Gabo) 등이 있으며, 최근 한국에도 방한하여 큰 화제가 되었던 모델 겸 배우인 바바라 팔빈(Barbara Palvin)이 있음.

- 그 외 다수의 감독, 프로듀서, 작가 등이 있으며 특히 ‘The Simpsons’, ‘The Rugrats’등의 만화영화로 유명한 클러스키 추포(Klasky Csupo), 독립 스튜디오를 창립한 가보르 추포(Gábor Csupo), ‘반지의 제왕’에서 디지털칼라 작업을 한 마크와 아론 야스베리니(Mark and Áron Jászberényi) 형제가 있음.

10. Robert Capa와 사진

- 로버트 카파는 20세기 가장 뛰어난 전쟁 보도 사진작가이자, 세계적인 사진 에이전시 ‘매그넘 포토스(Magnum Photos)’의 설립자로 1913년 부다페스트 유대계 가정에서 출생함.
 - Capa는 어릴 때 별명인 차파(Cápa‘상어’)를 영어식으로 표기
- 짧은 일생동안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세계 다섯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 상황을 직접 사진에 담음.
 - 스페인 내전, 중일전쟁, 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 1차 중동전쟁, 1차 인도차이나 전쟁

11. 모호이(Moholy-Nagy László)와 Bauhaus 건축

- 모호이(Moholy)는 부다페스트에서 출생하였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 헝가리에서는 법학을 전공했으나 1919년 빈, 베를린으로 이주하면서 전공을 바꿈.
- 1923년 Walter Gropius의 요청에 따라 바이마르(Weimar)에 있는 바우하우스(Bauhaus)에서 금속예술 분야 교수로 예비과정을 담당하면서 합리주의와 기능주의를 강조, 그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시카고에서 제자를 양성함.
 - 바우하우스는 미술, 공예, 사진, 건축 등에 관련된 종합 예술을 교육하던 기관으로 현대식 건축과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줌.
- 그의 이름을 딴 산업미술대학교가 부다페스트에 존재함.

12. 푸스카슈(Puskás)와 축구

- 본명은 페렌츠 푸르첼드(Ferenc Purczeld), 총알처럼 빠른 경기 모습에 헝가리 국민들이 Puskás(총알)로, 스페인에서는 ‘Pancho’라 부르게 됨.
 - 헝가리 국가대표선수 시절 총 85경기에 출전하여 84골 획득함으로써 세계신기록을 달성 (※ 펠레는 92경기 77골)
- 푸스카슈의 황금기는 1956년 반소 민주혁명이 발생하기 전인 1950-1954년간으로 헝가리 국가대표팀 주장으로 활약하다 혁명 이후 빙으로 이주, 후에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Real Madrid)에서 39세(1958~66)까지 선수생활, 그 후 코치로 활동하다 2006년 지병으로 별세함.
- 1953년 영국전에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전술인 4-2-4 (기존 3-2-5) 구사로 6:3으로 승리하였으며,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팀과의 경기에서 9:0으로 승리함.
- 헝가리 오르반 총리는 축구 광팬으로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개최 당시 개인 자격으로 방한함.

13. ‘Gloomy Sunday’(1933)



- 헝가리를 가장 잘 알린 영화이자 노래로 잘 알려진 ‘글루미 선데이’는 세레슈(Rezső Seres)가 작곡을, 야보르(László Jávor)가 작사하여 전 세계 누구나가 시대를 초월하여 즐겨 듣고 부르는 노래가 됨.
 - 영화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다고 보도했지만 실상은 확인하기 어려움.

- 세레슈는 정식 음악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곡을 악보에 담을 수 없었으나 어느 음대졸업생이 곡을 듣고 그려서 전해지게 됨. 그는 주로 일반 식당(Kulacs)에서 연주하면서 하층민이 선호하는 대중가요를 작곡
 - 지금도 집시연주자들이 식당에서 자주 연주하는 곡으로, 헝가리어로는 소모루 베샤르넙(슬픈 일요일 Szomorú vasárnap)
- “군델” 레스토랑은 Gloomy Sunday의 영화 촬영 장소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